

Style 1 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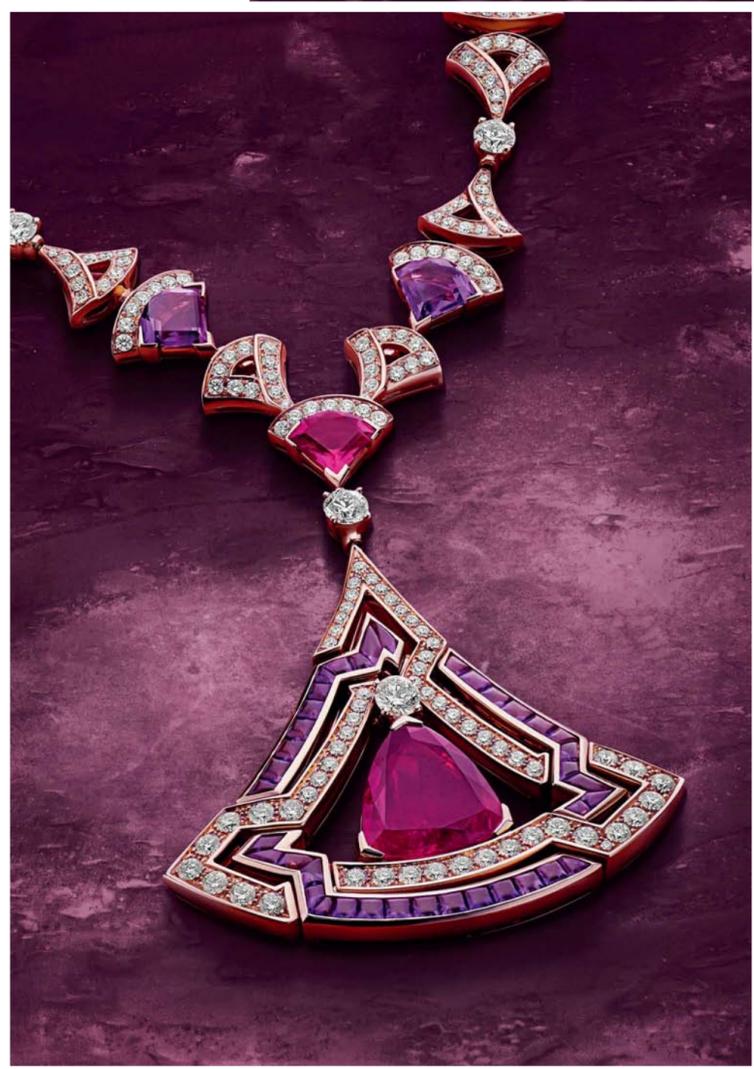
SEPTEMBER 2019
vol.193



Van Cleef & Arp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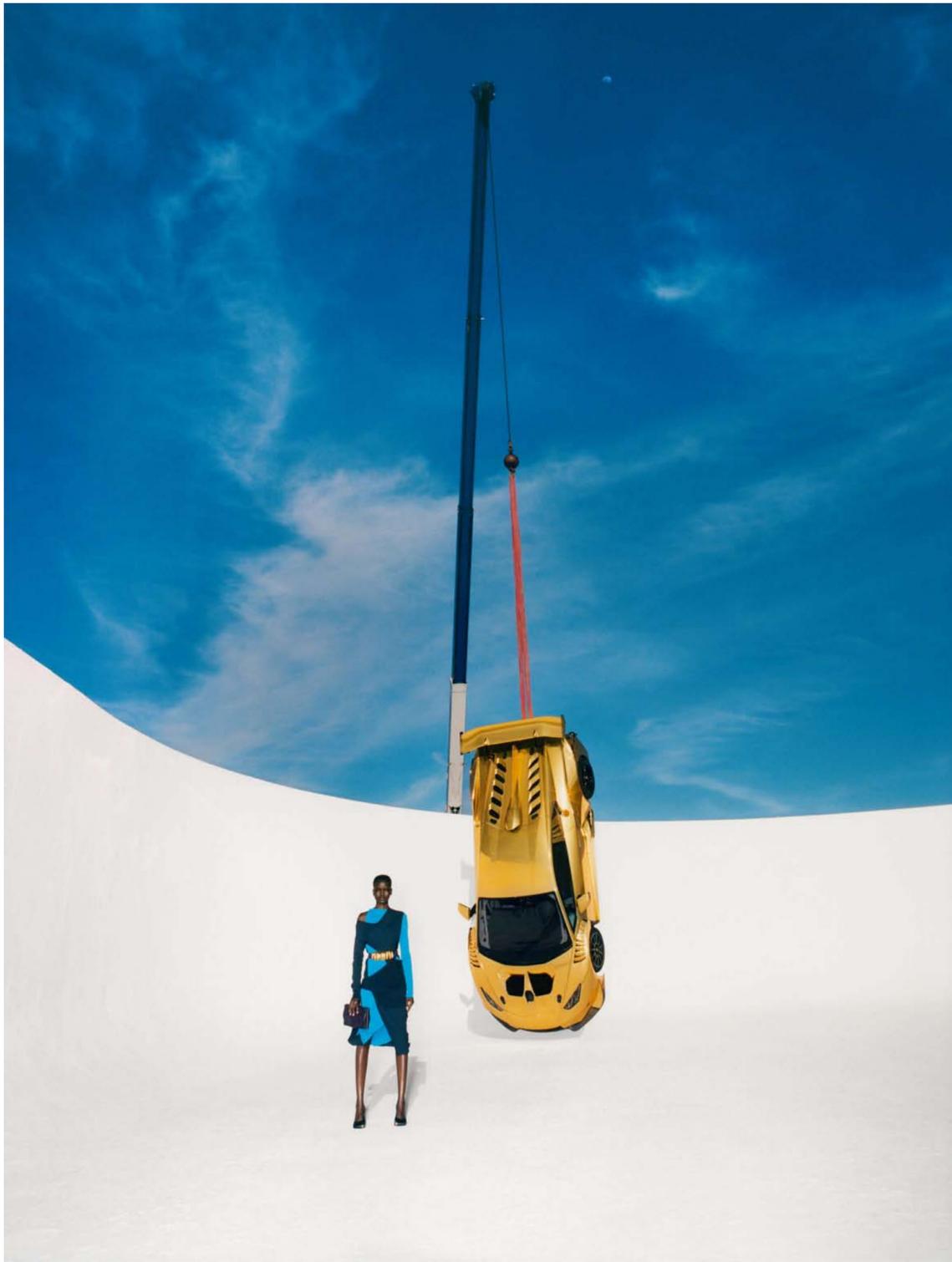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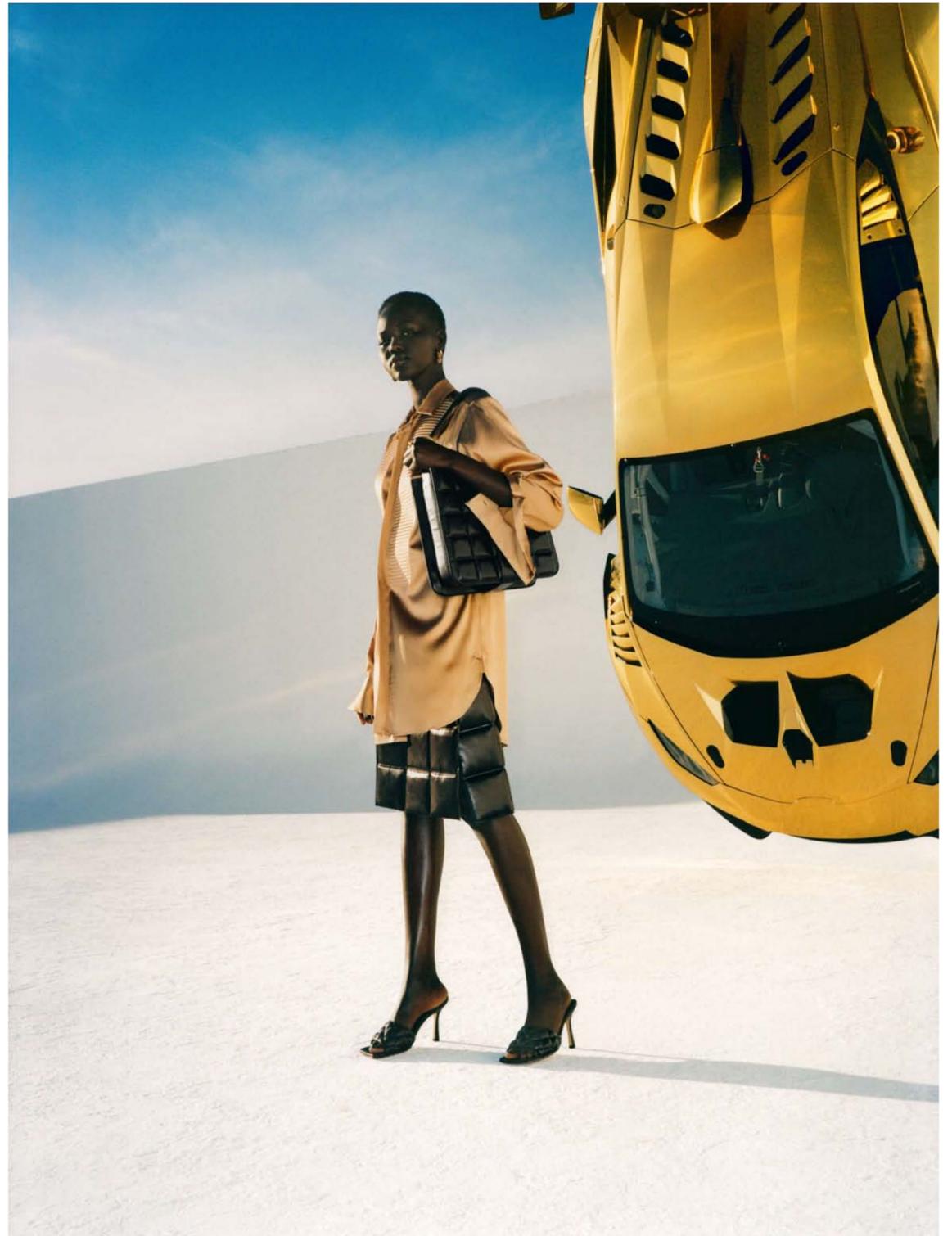


BVLGARI
ROMA

DIVAS' DREAM
BVLGAR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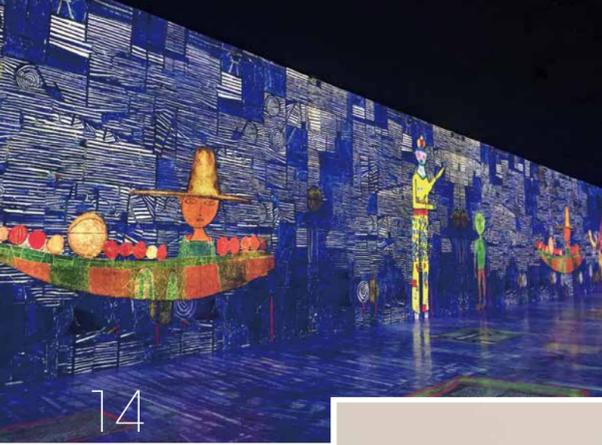


BOTTEGA



BOTTEGAVENETA.COM

VENETA



22

23



14



자신에 알맞은 컬렉션의 아름다움은 물론, 선풍적인 판매의 열풍을 기록하며 다이아몬드와 메디오브 팔의 경계를 뛰어넘은 새로운 주얼리와 타임피스도 선보인다. 표지의 제품은 빈티지 알함브라 20개 모티브로 장식한 롱 네크리스, 기묘하고 다이아몬드 파헤쳐 모티브를 교차해 따뜻한 느낌을 지어낸다. 문의 00798-852-16123



10

- 14 **확장하고, 참여하고, 몰입하게 만든다** 흔히 한미술을 가리켜 난해한 데다, 친절하지도 않다고 한다. 물론 모든 관람객의 기호와 이해 수준이 비슷할 수는 없다. 이는 만큼 보인다 하듯 배경지식이나 해당 작가에 대한 정보, 기획자의 의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많다. 첫 장을 아델게트 건데나면 비로소 지식처럼 빨리 돌아가는 고전소설처럼 때로는 약간의 안내를 바탕으로 한 노력이 필요한 작품 세계도 있기 마련이다.
- 16 **CELESTIAL HOUR** 무한한 우주의 아름다움을 작은 시계 다이얼에 옮겨 담았다. 천체를 모티브로 탄생한 여성용 컴플리케이션 워치.
- 18 **HAUTE DRAMA** 브랜드의 DNA를 담아 리얼 골드와 다이아몬드, 유색 스톤으로 완성한 가치 있는 패션 하우스 파인 주얼리 4.
- 20 **NEW VIBES ONLY** 2019 F/W 시즌 트렌드를 대변하는 새로운 백과 슈즈가 연출한 조화로운 장면.
- 22 **ABSOLUTE SPLENDOR** 로맨틱한 사랑을 하이 주얼리로 표현한 반 클리프 아펠, 프레스스 스톤으로 완성한 기묘미에의 컬렉션, 구찌의 하이 주얼리 론칭까지. 파리의 여름은 더욱 화려하고 빛났다.
- 23 **2019 F/W NEW LOOK** 빅 하우스들의 과감한 변신, 새로운 스타일에 관대해져야 할 시간이다.
- 32 **MAKE YOUR MOMENTS** 우주, 해양 등 미지의 세계를 향한 대담한 탐험 역사를 상징하는 오메가 스피드마스터와 씨마스터. 각 컬렉션을 대표하는 아이코닉 & 뉴 타임피스의 감각적인 지체.
- 34 **THE GREAT CHALLENGE** MC와 실버 스피드마스터의 공통점은 공학과 정밀성에 대한 애정. 올해는 두 영국 조종사가 실버 스피드마스터를 타고 세계 일주를 시작한다. 수십 년 동안 그려온 것처럼 이들의 손목엔 당연히 IWC 파일럿 워치가 자리하고 있다.
- 36 **A BRILLIANT HERITAGE** 경이로운 주얼리의 세계로 이끄는, 반 클리프 아펠의 역사가 담긴 헤리티지 컬렉션이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여 또 한번의 레전드를 완성했다.
- 37 **EVERYDAY SPECIAL** 해외 각국에서 직접 엄선한 다이아몬드에 국내 장인들의 숙련된 솜씨를 더해 주얼리를 완성하는 엔드루사. 좀 더 실용적이고 세련된 다이아몬드 주얼리를 제안한다.
- 38 **PRECIOUS FOR YOU** 탁월한 인터레이징 효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사넬의 르 리프트 크림을 세럼과 핸드크림 버전으로도 만날 수 있다.
- 39 **EYES PERFECTOR** 라프레리는 세로 하나 하나씩 에너지를 풀어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아이 리프팅 세럼을 출시한다. 캐비아 추출물을 베이스로 혁신적 기능까지 더한 스킨 캐비아 아이 리프트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 40 **EDITOR'S PICK** 강렬한 자외선과 실내외 온도차로 여름 동안 자칫 피부에 활력과 생기를 더해줄 가을 뷰티 신제품 13.
- 41 **MAGICAL CHANGE** 건조한 가을바람에도 고약없는 촉촉함과 아침 저녁 큰 기온차에도 흔들리지 않는 탱탱함. 주름 개선, 수분 충전, 노화 방지, 피부 재생 등 우리가 원하는 딱 그것을 담은 8개의 고기능성 크림.

FENDI.COM



SCAN WITH THE FENDI APP TO SEE EXCLUSIVE CONTENT

Style 조선일보 Issue.193 September 2019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장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에디터 | 이주이 juji@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분해 | 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시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FENDI



Watch
TIME TO SHINE

대담한 다이아몬드 장식의 하이주얼리 위치 4.

(위부터) 화이트 루브 카이스트와 다이얼, 브레이슬릿 전체인 약 11.77캐럿에 16는 0.920캐럿의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한 포제션 하이주얼리 위치 가격 미정 **파이퍼**, 이클립스 블루 기어세 라커 다이얼을 깬한 베르만 라그레 약 7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다이몬드 오벌 위치 가격 미정 **소피드**, 과감하고 직선적인 디자인의 벨 에포크 다이아몬드 위치, 시계 전체에 총 16.867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눈부신 빛을 발한다. 1억4천3백만원 **다이아나**, 손목을 타고 흐르는 유연한 곡선형 방글라다이얼에 총 8.82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스페이얼 다이아몬드 벨 위치 1억9백50만원 **그라피**, 에디터 **이타미**

Fashion
THINK PINK

살랑살랑 부는 가을바람에 한껏 멋 부리고 싶을 땐, 핑크.



(위부터) 버건디 핑크 컬러 렌즈로 힘을 준 선글라스 가격 미정 **사벨**, 수직 윤곽을 잡아주는 오버사이즈 솔과 지오메트릭, 플로럴 및 FF 모티브가 특징인 하이테크 자카드 롱부츠 2백만원대 **렌다**, 부드러운 사치니 카프 스킨의 라지 사이링 소팔백 가격 미정 **사벨**, 핫핑크 컬러 세틴 메리제인 슈즈, 크리스탈을 장식해 화려한 느낌을 더했다. 2백14만원 **로지 비비에**, 환상기 포인트로 적합한 70x180cm의 실크, 캐시미어 혼방 스파크 98만원 **레오나드**, 캐주얼하게 연출할 수 있는 쇼가죽 크로스백 99만원 **이퍼깁 마방**, 실크, 세라믹, 유리 소재를 사용한 앙증맞은 체리 모티브 컵프스 링크 1백71만원 **보타카 베네라**, 에디터 **장라윤**

로얄 살루트

INSIGHT

편잡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스들.

Drinks
추석인 초가을, 운택한 즐거움을 선사할 프리미엄 주류

무더위가 한풀 꺾였나 싶더니 어느새 성큼 다가선 초가을. 올해는 다소 빨리 찾아온 추석 연휴를 앞두고 프리미엄 주류를 선물 후보로 고민하고 있다면 매력적인 후보가 있다. 우선 삼백년 애호가라면 프레스타지의 상징과도 같은 브랜드인 돔 페리뇽(Dom Pérignon)과 크루그(Krug)의 뉴 페이스를 기억해둘만하다. 지난해를 화려한 행사에서 각각 선보인 돔 페리뇽 빈티지 20002 - 플래너티드 2와 크루그 그랑 큐베 167 에디션이다. 15년의 숙성기를 거쳐 애호가들이 증집됐을 뿐 아니라 조화미가 대해진 빈티지인 돔 페리뇽 제품은 지난 7월 초 제주에서 미술관 스타 입장식과 함께 국내 무대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크루그 그랑 큐베 167 에디션은 유적 페어링으로 유명한 크루그가 특별한 손님과 동반 등장했다. 3D 사운드 레코딩과 제작, 공연 분야의 개척자로 명성 높은 벨기에 뮤지션 오자크 헨리(Ozark Henry)가 그 주인공. 서울 강남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그는 서로 다른 연도에 생산된 12개의 와인을 블렌딩한 뒤 7년간 셀러 숙성을 거친 167 에디션의 탄생에 영감을 받아 만든 두 곡을 연주한 뒤 이들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멋들어진 라이브 공연으로 표현했는데, 강렬한 무이음이 돋보여 청중의 감명을 받았다. 스키치위스키를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로얄 살루트(Royal Salute)를 주목해보면 어떨까. 최소 21년 이상 숙성한 원액만 사용하는 영국 왕실 위스키는 DNA를 지닌 만큼 워낙 고정 팬층이 탄탄한 이 브랜드는 얼마 전 서울에서 리뉴얼(renewal) 론칭을 위한 글로벌 행사를 열고 근사한 변신의 면모를 드러냈다. 현대미술가 크리스티나 울리엄스와 협업해 로열 메-주리얼 동물원을 모티브로 한 생동감 넘치는 일러스트를 곳곳에 반영하고 세련된 감각이 돋보이는 패키징 디자인을 입힌 것. 로얄 살루트 21년 시그니처 말고도 21년 이상의 싱글몰트를 사용한 리사리 울트위스키 '로얄 살루트 21년 울트', 그리고 시라진 증류소에서 생산한 울트와 그레인 스키치위스키를 바탕으로 한 '로얄 살루트 로스트 블렌드'도 새롭게 내놓았다. 아예 수제 싱글몰트 브랜드 발베니(The Balvenie)와 글렌피딕(Glenfiddich)으로 구성된 10종의 선물 세트도 나와 있다. 에디터 **고성연**



Beauty
SOAP THERAPY

가볍고 상쾌한 비누 향이 풀쭉. 보트보트드 개운한 가을 비누 8.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르메스 트윙클 데르메스 파퓌드 슝** 저저, 투베르즈, 샌들우드 등 세 가지 향을 담았다. 매일 거품 목욕하듯 섬세한 향을 입혀 기분 전환에 도움을 준다(100g×3 9만원). **프래쉬 아이코닉 컬렉션 오벌스 프리자아** 풍성한 화이트 플로럴 향을 머금어 꽃으로 가득한 정원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250g 2만2천원). **조일론 런던 라임 바질 앤 민디린 슝** 특 쓰는 라임 바질과 은은하고 상쾌한 민디린 향이 묘한 중독성이 있다. 현대적이고 클래식한 향(100g 3만3천원). **골레드보 보테 시노피트 사본** 비누 하나를 제작하는 데 4개월이 걸린다. 이중 세안이 필요 없는 원샷 클린저로, 고농축 수분 에센스 한 병을 담은 강한 보습력이 특징(100g 13만8천원). **러쉬 스타나 오브 슝** 씨 없는 말린 건포도와 살구, 베르가모트가 어우러져 최강의 보습 효과를 발휘한다(100g 9천원). **특사당 에르메 파퓌드 슝** 프로방스 자연에서 찾은 프레시한 와일드 그라스 향이 은은한 보디 핸드 앤드 전용 파퓌드 슝(100g 9천원). **이름 비디 클렌징 슬립** 인위적인 향과 색, 수지, 거품을 내는 재료를 포함하지 않은 촉촉한 식물성 비누로, 티타늄 라임 향이 난다(310g 2만7천원). **사벨 N5 르 세뽀** 가볍고 풍부한 거품이 특징. 사벨 N5 향이 보호카처럼 부드럽고 은은하게 피부를 감싸준다(150g 4만원). 에디터 **장라윤**

로얄 살루트

Exhibition
〈The Four Seasons of Painting Show, 회화의 사계절〉展

회화라는 공통분모가 있지만 전시 주제나 표현 방식이 저마다 확연히 다르면서 파격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흥미로운 7인의 동시대 작가를 만나는 기회가 펼쳐지고 있다. 미국 뉴욕과 사카고 출신 작가들의 다채로운 개성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The Four Seasons of Painting Show, 회화의 사계절〉展. 이트조산과 파파리다인이트 캠퍼의 강희경 대표가 손꼽히며 2019 아트조산은 스테이지의 세 번째 기획전으로 조산은비미술관에서 9월 8일까지 열린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가려의 간판 등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탐구하는 그레그 보긴(Greg Bogin), 전통적 회화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로만틱하고 유머러스한 감각으로 시화적 이슈를 결합해 독특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조시 리믹스(Josh Reames), 광택 나는 실크에 과감한 붓질과 콜라주를 접목해 강렬함과 따스함이 공존하는 로렌 실바(Lauren Silva), 르네상스와 바로크시대의 고전 회화를 분해하고 팝아트적 의미를 펼쳐서가는 방식의 역사화가 인상적인 매튜 헨젤(Matthew Hansel), 패션,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등의 영역에서 치용한 다양한 이미지를 '우연한 연관성'이라는 초점을 갖고 엮어내는 마이클 베빌리쿠아(Michael Bevilacqua), 도시와 거리 구조를, 그리고 수백만 행이 가한 물리적인 흔적을 작화의 원천으로 삼는 웬디 화이트(Wendy White), 사카고를 무대로 활동하는 거리 예술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심리적, 개념적으로 탄탄한 토대를 지닌 포즈(POSE, 또는 Jordan Nickel) 등 7인이다. 문의의 아트조산 02-724-7832 에디터 **고성연**



이퍼깁 마방

PRADA



PRADA.COM

레더에 벨트 패턴의 소재를 덧댄
양면 1백75만원 토조.

스퀘어 프레임의 그린
렌즈 선글라스 20만원대
레이벤 by 록스타카.

브라운 컬러 가죽 애플보츠
가격 미정 벨트.

고급적인 패턴이 돋보이는 황금색 케이스
가격 미정 살바토레 메라카모.

정교한 말 모티브 살바틴 20만원대 에르메스.

좁은 와인 컬러
다이얼과 스트랩이
감각적인 리베르소
트리뷰트 스톤 세컨즈
가격 미정 예거
르클르.

모고로 전향
장식한 레더 소재
뉴스보이 캡
가격 미정 벨루티.

핸드 니트 하트
모티브와 레더링
로고 핀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브로치
50만원대 프라다.

두툼한 라바 솔을
더한 레이스의
영광부츠 가격 미정
브루넬로 쿠치넬리.

for him
Selection

체질감을 강조한 소재와 레트로 무드 프린트 & 컬러로 완성한
감각적인 스타일,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살바토 메라카모
반티지한 브라스 소재
스라 핑거링 61만원
자방시.

1967년 탄생한 아이코닉 로고 패턴의 오블리크 캔버스 소재에 아티스틱한
감성을 더한 플리스트럼 백 1백60만원대 디올 맨.

멀티 컬러 글로브 키프 링크스
23만원 토조.

세양리안트 상징장
아이스아트 이상형 에티어 아방미

예거 르클르 02-6905-3998
몽블랑 1670-2551
토조 02-3438-6008
록스타카 02-569-3931
멘디 02-2056-9023
에르메스 02-542-6622
벨루티 02-3446-1895
프라다 02-3442-1830
자방시 02-6370-4099
에트로 02-511-2573
구찌 1577-1921
폴 스키스 02-6905-3456
디올 맨 02-513-3232
살바토레 메라카모 02-2140-9664
브루넬로 쿠치넬리 02-3448-2931

1980년대
음악 테이프와
카세트 슬리브에서
영감을 얻은
미니스타스틱 소프트
그레인 미스 테이프
키울더 루프 23만원
몽블랑.

클래식한 체크 패턴을 재킷 1백75만원, 레트로 무드의 컬러풀한 플리워 셔츠 68만원 모두 에트로.

www.brunellocucinelli.com

time for *Spirit*, time for *Harmony*



BRUNELLO CUCINELLI



화려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크리스마스 선물로 추천합니다.

크리스탈로 장식된 팔초커 4백20만원
구찌.

별다른 팔각형 세리믹 모티브 링 1백10만원
보태가 베네타.

디스크 무드의 레드 크리스탈 펌프스 1백40만원
프라다.

브라운 레이저 벨벳 소재 애들백 3백30만원
지방시.

레트로풍 오버사이즈 프레임 선글라스 가격 미정
마이클 코어스 컬렉션.

샤넬리네 유성 머스타트 이상형 9백40만원
이해미

타로에서 영감을 얻은 골드 트레일링 179만원
스미르노프스키.

V 로고 메탈 장식을 더한 레드 트리밍 햇 가격 미정
발렌티노 가라바니.

for her Selection

2019 F/W 시즌 메인 트렌드인 레트로 룩을 완성할 다채로운 신상품 리스트.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스틸 케이스에 브라운 카프 스킨 스트랩을 매치한 애플 데르메스 워치 가격 미정
에르메스.

청키 힐을 더한 하운즈투스 체크 펌프스 1백39만원
지안비토 로시.

건축적인 힐과 레드 패치워크가 감각적인 통부츠
살바토레 페라가모.

6.92캐럿 투르말린을 세팅한 샹그릴라 링 가격 미정
골든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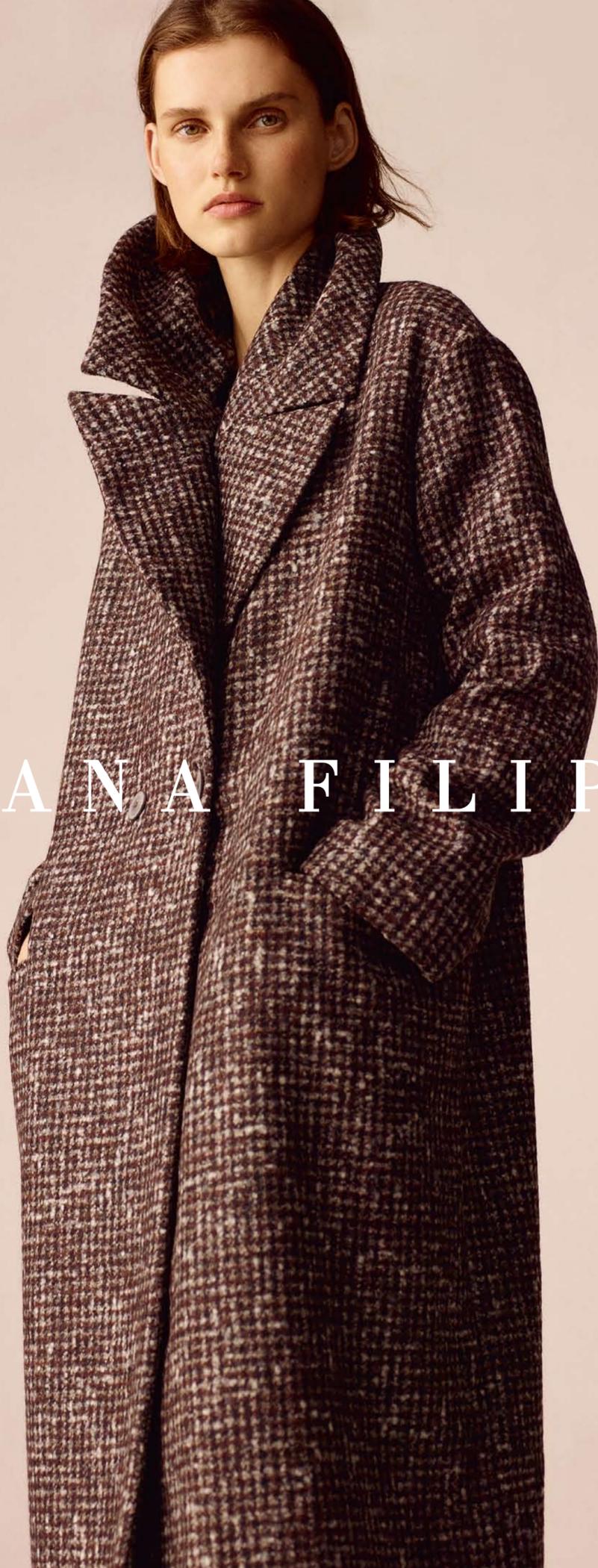
풍성한 실루엣의 패더 프린트 시폰 드레스 1백46만원
말버리.

아이코닉한 체인 디테일이 멋스러운 가죽 벨트 가격 미정
샤넬.

- 구찌 1577-1921
- 살바토레 페라가모 02-2140-9664
- 스텔라 매카트니 02-6905-3680
- 발렌티노 가라바니 02-2015-4653
- 보태가 베네타 02-3438-7682
- 에르메스 02-542-6622
- 스미르노프스키 1522-9065
- 지방시 02-6370-4099
- 프라다 02-3442-1830
- 골든듀 1588-6576
- 샤넬 080-200-2700
- 말버리 02-3438-6140
- 지안비토 로시 02-6905-3690
- 마이클 코어스 컬렉션 02-546-6090

FABIANAFILIPPI.COM

FABIANA FILIPPI



확장하고, 참여하고, 몰입하게 만들다

흔히 현대미술을 가리켜 난해한 데다, 친절하지도 않다고 한다. 물론 모든 관람객의 기호와 이해 수준이 비슷할 수는 없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듯 배경지식이나 해당 작가에 대한 정보, 기획자의 의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얻는 것'도 많아진다. 첫 장을 어떻게든 건너내면 비로소 자석처럼 빨려 들어가는 고전소설처럼 때로는 약간의 인내를 바탕으로 한 노력이 필요한 작품 세계도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시 방식이나 내용 면에서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이라 관람객과 동떨어진 듯한 콘텐츠가 상당수 미술관과 갤러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콘텐츠의 독창성이나 수준보다 모객이 중요한 나머지 '인스타그램 스폿'에 제일 신경 쓴 티가 역력히 나는 전시 공간을 바라보는 것도 씁쓸하다. 관람객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참여적인 경험을 선사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채워가는 플랫폼. 완성형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시도를 꾀하는 작가와 전시장에 눈길어 가는 요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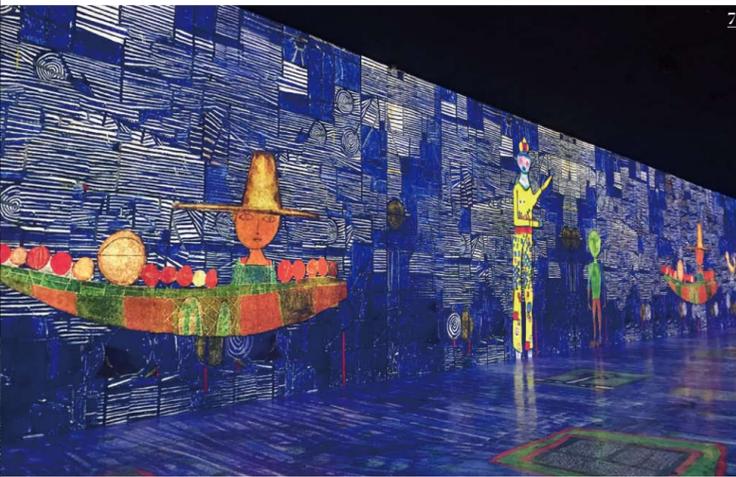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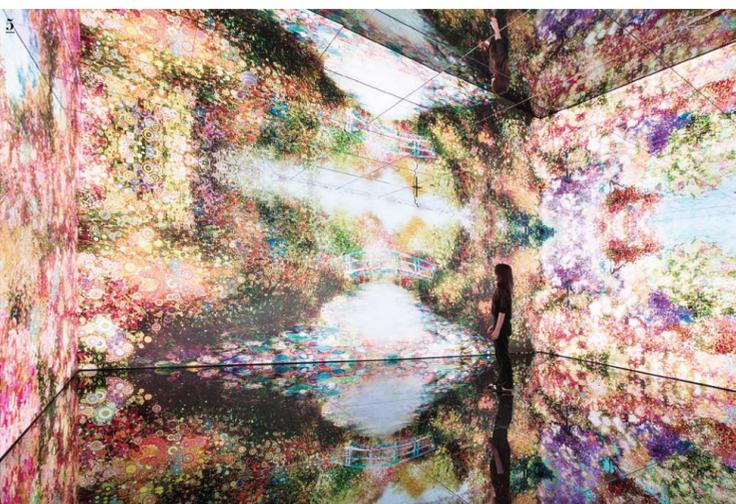
많은 이들이 원하고, 성공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전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뉠 듯하다. 피카소, 마티스, 고흐 같은 '올드 마스터'든 데이비드 호크니처럼 주가 높은 동시대 슈퍼스타든 '브랜드'를 내세운 블록버스터 전시, 그리고 참신한 감각과 실력으로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선사하는 창의적 전시. 그런데 세계 유수 미술관에 흠어져 있는 원화를 한데 모으는 블록버스터 전시를 기획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중요한 작품은 잘 빌려주지도 않을뿐더러 원만한 기관에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필요로 한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로 꼽히는 빈센트 반 고흐가 생의 마지막을 지냈고, 그와 동생 테오의 무덤도 자리한 파리 근교의 마을 오베르쉬르우아즈(Auvers-sur-Oise)에 간 적이 있다. 짧은 생애였지만 '열일' 했던 고흐는 이곳에서도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애석하게도 마을 어느 곳에서도 그의 그림 한 점을 볼 수 없다. 작품에 영감을 주었거나 소재가 되었던 장소에 복제본이 걸려 있을 따름이다. 고흐가 이 마을로 오기 전에 머무른 남프랑스에 가짜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획전을 여는 미술관도 있기는 하지만, 아주 드물다(고흐 컬렉션은 암스테르담, 파리, 뉴욕 등 주요 도시의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생전 단 한 점의 그림을 팔았던 고흐인데, 지금은 너무나 귀하고 비싼 당신이 되어버렸다.

전시 콘텐츠의 확장성을 엿보다, 고흐를 '공유'하는 방법

강력한 문화 아이콘이 된 고흐에 대한 수요가 신드롬 수준으로 높은 오늘날, 그 걸음을 어느 정도 재워줄 흥미로운 대안이 등장했다. 그중 하나는 얼마 전 서울 우정아트센터에서 막을 내린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나다)라는 체험형 전시. 처음에는 흔히 그림이나 영상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전시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꽤 신선한 요소를 품고 있었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반 고흐 미술관의 아카이브와 기술로 작가의 예술 세계를 '오감'으로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게 그 차이점. 반 고흐가 겪은 삶의 여정을 영화 세트처럼 6개 테마로 구성한 점도 흥미롭지만, 릴리포그라피라는 특허 기술 등을 활용해 실물 크기는 물론 작가의 생동감 넘치는 붓 터치와 물감의 질감, 두께를 그대로 살린 '뮤지엄 에디션'이 이목을 끌었다. 대다수 복제본과 달리 진품과 놀랄 정도로 닮은 이 한정판 에디션은 고흐의 유화 중 '해바라기', '꽃 피는 아몬드 나무', '추수' 등 대표작을 골라 각각 2백60점만 제작했는데, 한국 전시에는 8점을 선보였다(몸소 만지고 느껴볼 수 있어 인기 만점이었다). 캔버스 뒷면도 원본과 똑같이 만들어 3D 프린팅 기술의 진보에 감탄을 금치 못하게 만드는 이 뮤지엄 에디션은 자신의 작업을 판화로 복제해 많은 이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싶어 했던 고흐의 유지를 21세기적으로 반



1, 3 '발명의 화가 고흐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보는 관객 몰입형 전시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나다)가 지난 8월 말까지 서울 우정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이 재현을 맡았으며, 3D 복제 특허 기술로 고흐의 대표작을 실물처럼 재현해 물감의 질감이나 두께 등을 직접 만지고 느낄 수도 있는 한정판 뮤지엄 에디션이 이목을 끌었다. 이미지 제공: 마스터 엔터테인먼트 2, 4 비가 쏟아지는 관람객은 비에 젖지 않는다는 콘셉트로 지난 2012년 런던에서 첫선을 보인 이태 뉴욕, 상하이 등을 거쳐 최근 부산현대미술관에 상륙한 아티스트 듀오 랜덤 인터내셔널의 설치 작품 레인 룸(Rain Room). 랜덤 인터내셔널의 (아웃 오브 컨트롤)전은 내년 1월 27일까지 열린다. 4번의 인물은 부산을 찾은 작가 플로리안 오르트크라스(Florian Ortgrass). 이미지 제공: 부산현대미술관 5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에 최근 문을 연 미디어 아트 미술관 뮤지엄 다(Museum DAH). 무려 8천여 개의 초고화질 LED 발광다이오드를 약 826㎡(2백50평) 규모의 공간에 설치해 관객에게 놀라운 풍경을 선사한다. 현재 개관전 (완전한 세상과 김지희 작가의 개연성) 진행 중. 이미지 제공: 뮤지엄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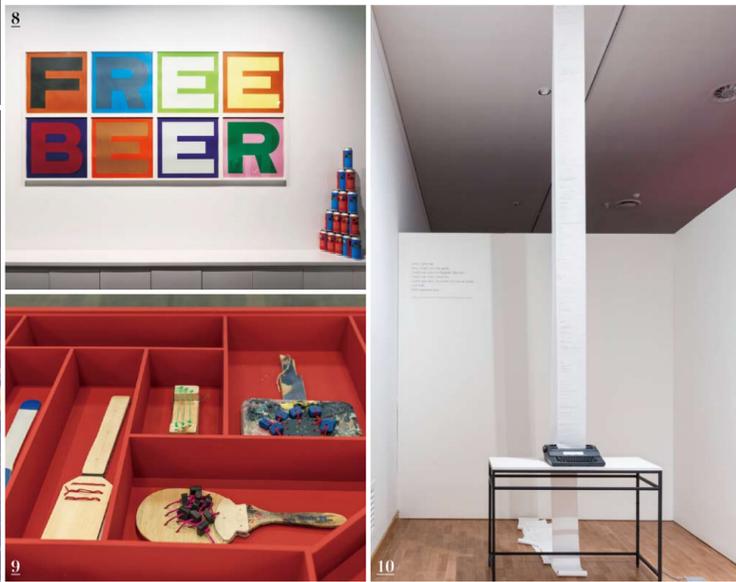


영한 결실이라고. 이외에도 공중에서 손을 휘휘 저으면 마치 그의 붓질처럼 채색하는 느낌을 주는 디지털 캔버스, 10년에 걸쳐 창작한 그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역자형으로 모아놓은 미디어 월(따로 설치된 터치스크린을 활용하면 각각의 작품 정보를 일일이 접할 수도 있다) 등 체험 요소를 골고루 갖춘 이 전시는 앞서 스페인, 중국에서도 열렸다. 콘텐츠를 결어 다른 매력으로 확장한 사례로는 폐쇄된 채색장의 커다란 석화함을 캔버스 삼아 멀티미디어 쇼를 펼치는 '빛의 채색장(Carières de Lumières)'을 꼽을 수 있다.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레 보드프로방스에 자리 잡은 이곳은 근현대미술사를 수용하는 가정들의 작품 이미지를 우아하고도 강렬한 음악의 선율 속에 7,000㎡ 면적의 채색장 바다, 벽, 천장 등에 투사해 마치 몽환적인 춤을 추는 듯한 광경을 자아내는 명소로, 프랑스 기업 컬처스 페이스가 운영한다. 아미엑스(AMIEUX®)라는 미디어 아트 기술 덕에 가능한 이 몰입형 전시는 해마다 수십만 명의 인파를 끄는데, 지난해 말 국내 기업 티모택이 제휴해 제주 성산에 '빛의 방'이라는 전시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현재 레 보드프로방스와 파리에서는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Van Gogh, Starry Night))전, 제주에서는 (빛의 방: 클림트)전이 각각 열리고 있다. 이 역시 원작의 향연은 아니지만 '몰입 체험'의 정수를 담아 21세기다운 콘텐츠의 확장성을 보여준다.

능동적인 관객 참여형 전시로 몰입하게 하다

안 그래도 요즘 미술을 둘러싼 전시 콘텐츠 세계에서는 '몰입형', '체험형', '관객 참여형' 같은 단어가 꽤 빈번히, 눈에 띄게 등장한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사례들처럼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그리고 관객이 작품을 만지거나 조각을 하면서 오감을 자극받게 하는 설치 작품 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에 들어선 뮤지엄 다(Museum DAH) 역시 미디어 아트와 설치 작품 등을 통해 관객에게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는 미술관이다. 벽과 바다, 천장 할 것 없이 복층의 널찍한 '집' 같은 공간에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의 세계를 즐길 수 있는 문화 예술 공간으로, 클림트의 명화 장면이 황홀하게 펼쳐진다. 그뿐 아니라 알레산드로 멘디니가 20세기 디자인사에 한 획을 그은 자신의 작품 프루스트 체어에 앉아 책장을 넘기는 영상 등을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화려한 아르누보풍 가구가 놓인 공간에서 증강현실(AR)을 경험해볼 수도 있다. 이 공간을 빛어낸 창업자 중 한 명이자 2인조 미디어 아티스트 팀 플라주 플러스의 일원인 장승호 대표는 '삶은 예술이라는 명제를 염두에 두고 삶의 축소판인 일상의 집을 이루는 모든 요소가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한다. 관객이 '체험' 수준을 넘어 전시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 예컨대 관람객이 영상 방명록을 남길 수 있는 키오스크가 미술관에 놓여 있다고 상상할 때, 전시를 평가하는 별점을 매기거나 자기 의사를 표현한 영상을 남기는 소극적인 수준도 있고, 스스로가 작품의 일부가 되고 콘텐츠를 창조해내는, 훨씬 더 적극적인 '기어' 유형도 있다. 오스트리아 작가 에르빈 부름(Erwin Wurm)의 '1분 조각'이라는 작품이 좋은 예다. 간단한 지시 사항을 안내받은 관람객은 60초 동안 자신이 원하는 고정 자세를 취해 '살아 있는 조각'이 되어볼 수 있다. 개개인 작품도 되고, 전시를 이루는 요소도 되는 셈이다. 하지만 참여하는 요소 자체가 미덕은 아니다. 작가와 전시 기획

4, 7 제주 상산의 문화 예술 명소로 자리매김한 '빛의 방', 세월 초월한 명화들의 작품을 한상적인 몰입형 콘텐츠로 빛어낸 멀티미디어 전시 공간. 클림트, 훈데르트바서, 에곤 실레 등 오스트리아 거장들이 선보이는 전시는 오는 10월 27일까지 열린다. 8 덴마크 3D 조형 그룹 슈머클렉스의 개인전 (우리도 공작에는 기적이 있다)가 진행 중인 국제갤러리 부산점 동경. 관객 참여형 전시는 아.다.한 Free Beer라는 작품은 '오른손의 연주'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 왔다. 채로 양조 전구의 레시피와 브랜딩 요소를 누구나 쉽게 공유할 수 있다(www.freebeer.org).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9 타이베이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됐던 카롤리나 브레굴라(Karolina Bregula)의 작품 'Instruments for Making Noise'. 관람객들은 이 창조적 도구들을 빌려 창작적 향연을 위해 사용하고 돌려줄 수 있다. 이미지 제공: MOCA Taipei 10 부산현대미술관 기획전 (이음현상: 나와 마주하기)전에서 선보인 비바스의 '살인'시리즈 중, 관객은 자신의 실연을 타자기로 적을 수 있다. 이미지 제공: 부산현대미술관



자의 창의적이고 세심한 '설계' 없는 콘텐츠의 핵심과는 별 상관도 없는 의미 없고 질 낮은 콘텐츠로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또 (참여적 박물관)이라는 책을 쓴 니나 사이먼이 말했다. 문화 기관에 대한 관객의 참여는 최소한 1백 년 이상 오래된 논의일 테니, 새로운 것도 아니다. 하지만 진화한 사례들은 있다. 최근 관람객이 체험도 하고 참여도 하는 전시 콘텐츠로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레인 룸(Rain Room)이 부산에 상륙했다. 을숙도에 자리한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지난 8월 15일 시작된 아티스트 듀오 랜덤 인터내셔널(Random International)의 (아웃 오브 컨트롤(Out of Control))이라는 전시에 포함된 설치 작품인데, 비가 쏟아지는 방에 들어가 거니는데, 젖지는 않는 '묘한' 경험을 선사한다. 카메라에 장착된 센서 덕분에 비 내용도 나고, 빗줄기도 쏟아지지만 실제로 거의 젖지 않는다(단, 빨리 걸으면 안 된다). 작가 중 한 명인 플로리안 오르트크라스(Florian Ortgrass)는 부산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반짝 떠오른 아이디어로 출발해 실제로 첫 프로토타입을 내놓는 데는 4년가량 걸렸다"면서 "그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하지만 2012년 영국 바버칸 센터를 필두로 뉴욕, 상하이, 로스앤젤레스 등을 거쳐 인기를 모았기에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뒤따르지 않았다. 살다(레인 룸)은 동시 관람자가 제한되므로 인터넷 예매가 필수다. 디지털 시대의 정체성과 통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전시지만, 아무런 선입견 없이 방문해달라는 게 작가의 부탁이다. 내년 1월 27일까지 계속된다.

현대미술, 꼭 떠날지라도는 않잖아!

부산현대미술관은 지난달 5개월에 가까운 전시 여정을 끝낸 (이음현상: 나와 마주하기)라는 전시에서도 참여적 콘텐츠의 관점은 예를 남겼다. 타자기에 '사랑 고백이든' '실연의 사연이든' 몸소 남길 말을 타이핑해서 종이로 길게 뽑아내기도 하고, 작은 공간에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누군가를 대상으로 '사과(apology)'의 글귀를 적고 구명으로 그 종이를 넣을 수 있는(비밀 유지) 차원에서 문서는 바로 분쇄기로 향한다) 참여적 작품이 일상적이면서도 잔잔한 재미와 여운을 주는 전시였다. 상설전보다는 기획전을 주로 꾸리는 부산현대미술관은 오늘날 끊임없이 다른 모습을 선보이는 기획 공간으로서의 미술관, 다시 말해 가변적 플랫폼의 면모를 더 깊게 드러내고 있다. 최근 부담스럽지 않고 즐거운 참여를 이끌어내면서도 진중한 고민거리, 담론의 씨앗을 던져주기도 하는 모범 사례로는 대만의 작지만 강한 미술관인 타이베이 현대미술관(MOCA Taipei)을 꼽고 싶다.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펼쳐진 (Living Sound - Expanding the Extra-musical)이란 전시를 예로 들자면, 이 미술관의 마케팅 담당자가 참여해 문화 기관 위에서 일하는 이의 고충을 유머러스하게 담아낸 작품도 있고, 이전 전시에서 쓴 물품과 재료를 바탕으로 온갖 소리를 내는 다양한 형태의 도구를 전시한 작품도 있는데, 은근히 미소를 유발하면서도 기발함에 감탄하게 만든다. 후자의 경우 언뜻 그냥 도구를 늘어놓은 듯하지만, 사실 이 '깜찍한' 악기들은 갖가지 소리를 내므로 관람객이 원하면 빌려 자신만의 '정치적 항의'에 쓸 수도 있다(물론 돌려줘야 한다). 관람객이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의미를 발하는 작품인 데다, 미술관과 '공유' 경제를 실천할 기회인 셈이다. 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회나 문화를 드러낼 수 있는 플랫폼을 꾸리고 전시를 설계하는 것이야말로 동시대 미술의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 그리고 덕목이 아닐는지. 글 **김연진**

celestial Hour

무한한 우주의 아름다움을 손목 위 작은 세계
다이얼 속에 옮겨 담았다. 천체를 모티브로
탄생한 여성용 컴플리케이션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우부터 시계 방향) 반젤리프 아펠 미드나잇 인 파리
파리 밤하늘의 낭만적인 별자리를 핸드 페인팅한 아펠추린
골드 디스크가 3백65일을 주기로 천천히 회전하며 시간
을 알린다. 케이스 백을 보호하기 위한 핑크 골드 카버를
열면 실제 운석을 사용한 베이스와 함께 칼로다가 비닐스
럽게 모습을 드러낸다. 9천5백만원. 문의 00798-852-
16123 **에르메스 아산 레호 드 라 룬** 우주에서 자연으로 떨어
어진 운석 소재 다이얼의 12시, 6시 방향에 각각 남반구
와 북반구의 하늘 형상화한 문레이즈 인디케이터를 배치하
고 시. 분을 알리는 2개의 서브 다이얼을 더했다. 인허우
스 매뉴팩처 H1837로 구동하며 케이스 지름은 43mm. 1
백 퍼스 한정 출시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542-6622
**까르띠에 로랑드 드 까르띠에 데이/나이트 레트로그레이
드 문레이즈** 왕치 태양과 달이 지름 40mm의 딥 블루 레커
다이얼 위를 차례로 지난다. 데이/나이트 인디케이터와 레
트로그레이드 방식의 문레이즈 모두 정적해 파인 워치메
이킹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 워치. 1억원대.
문의 1566-7277 **에거 크롬트르 황태자 셀레스티얼** 황
도 12공과 북반구의 별자리를 새긴 라피스 라줄리 디스크
가 3백65일에 걸쳐 매일 조금씩 움직이며 변화하는 밤하
늘의 모습을 보여준다. 백열, 러그, 다이얼 상단을 포함해
케이스 전체에 장식된 크고 작은 다이아몬드는 마치 밤하
늘을 수놓은 반짝이는 별무리 같다. 가격 미정. 문의 02-
6905-3998 **볼가리 디버스 드림 로만 나이트 워치** 은하
수가 흐르는 밤하늘을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드는 깊고 푸
른 아펠추린 다이얼이 아름답다. 다이얼 가장자리와 인조,
2개의 트랙으로 나뉜 디스크에 새겨진 다이아몬드 스톤이
사정적으로 시, 분을 가리킨다. 백열을 장식한 블루 사파
이어는 이워 마커와 마닛 트랙 역할을 한다. 5천1백만원
대. 문의 02-2056-01709 **에버티 아펠미**

HUGO BOSS KOREA LTD. PHONE +82 2 2210 5100



BOSS

BOSS.COM

BOSS
HUGO BOSS



GUCCI
GG Running Collection
 RJC(Responsible Jewellery Council)의 COC(Chain of Custody)가 인증한 골드만 사용하고, 다이아몬드를 공정하게 생산·공급하는 데 기여하는 구찌,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GG 로고를 이용해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작고 앙증맞은 파인 주얼리 라인을 선보인다. 문의 1577-1921

총 0.17캐럿의 46개 다이아몬드를 장식한 화이트 골드 GG 라인 오픈 브레이슬릿 2백66만원, 옐로 골드 총 0.22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35개를 장식한 GG 라인 네크리스 3백70만원, 화이트 골드 총 0.17캐럿의 25개 다이아몬드를 매치한 GG 라인 상급 이어링 1백53만원 모두 구찌.



HERMÈS
Finesse Collection
 시간이 지나 세대가 바뀌어도 존부하지 않도록 클래스에 동시대적인 세련미와 위트를 더한 에르메스의 철학을 그대로 담았다. 유행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미적인 면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타일과스한 데일리 파인 주얼리가 바로 이 컬렉션이 추구하는 방향. 문의 02-542-6622

(왼쪽부터)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가 조화를 이루는 피세시 컬렉션 펜던트 네크리스 5천9백만원대, 부드럽게 흐르는 라인 네크리스 6천2백만원대, 브레이슬릿 2천9백만원대 모두 에르메스.

haute Drama

패션 하우스에서 선보이는 파인 주얼리는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 주얼리와 느낌이 사뭇 다르다. 브랜드의 DNA를 담아 리얼 골드와 다이아몬드, 유색 스톤으로 완성한 가치 있는 파인 주얼리 4.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LOUIS VUITTON
B Blossom Fine Jewelry Collection
 1886년 조르주 루이 비통이 창조한 별 향배의 아이콘인 시그니처 플라워에서 비롯되었다. 골드, 스톤, 다이아몬드가 어우러진 이 컬렉션은 독립적인 여성이 자신에게 예술 작품을 선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7개의 위트 넘치는 반지와 작은 플 펜던트 네크리스는 레이아웃하기 좋다. 이 외에도 브레이슬릿과 이어링으로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32-1854

(우부터) 옐로 골드와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매치한 B 플라워 시그니처 링 9백만원대, 그린 컬러 알라카이트로 포인트를 준 B 플라워 링 4백만원대, 다이아몬드를 피세시 세팅한 B 플라워 링 1천2백만원대, 핑크 골드 다이아몬드를 매치한 B 플라워 펜던트 네크리스 가격 미정 모두 루이 비통.



PRADA
Fine Jewelry Collection
 프라다 아이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타, 장미, 로켓, 바나나, 환송이, 토끼, 그리고 삼각 로고 등 알뜰 가치 모티브를 이용한 네크리스, 이어링, 브레이슬릿, 펜던트로 구성했다. 광물을 채워 판매하는 이들의 인권과 사회, 환경을 위한 비영리단체 RJC의 인증을 받은 공급자가 채취한 18K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공급받아 여러 단계의 정밀한 수공예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문의 02-3218-5331 에디터 장미윤

18K 골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바나나 이어링 5백90만원대, 바나나 네크리스 3백70만원대, 기타 브레이슬릿 2백10만원대 모두 프라다.



NEW YORK LONDON
 PARIS SEOUL HONG KONG
 MICHAELKORS.COM

MICHAEL
 MK
 MICHAEL KORS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굵은사한 파이톤트 효과를 낸 네오프렌 소재 레드 부츠 가격 미정, 엠보싱 FF 로고로 장식한 벨벳 소재 바게트 백 가격 미정 모두 **렌다**, 날렵한 스타일레드 힐을 다한 아이 러브 비비에 레오파드 핏프스 1백34만원 **로저 비비에**, 탈착 가능한 숄더 스트랩으로 활용도를 높인 앙증맞은 미니 백 1백5만원 **살바토레 페라기노**, 칼라풀한 파이톤트 프린트 소가죽을 패치유근한 캐주얼백 80만원 **홍삼**, 자연스러운 그래픽이 인상인 멋스러운 스니커 스킨으로 힐까지 모두 감싼 핏프스 2백7만원 **구찌**.

New Vibes Only

2019 F/W 시즌 트렌드를 대변하는 새로운 백과 슈즈가 연출한 조화로운 장면.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기하학적 쉐핑 디테일, 유광 채인 스트랩, 볼드한 모노그램 장식이 특징인 앙가죽 소재 투톤 롤라백 2백19만원 **비비에**, 크로커다일 패턴을 엠보싱 처리한 카프 스킨 소재의 나노 사이즈 에렌 백, 메탈 트위스트 잠금장치를 장식적 요소로 활용한 두꺼운 숄더 스트랩이 멋스럽다. 3백13만원 **자형시**, 화이트 컬러의 LV 부부르 플랫폼 대비 슈즈 1백40만원대 **루이비통**, 세로로 패턴 처리한 카프 스킨과 각진 메탈 소재 핸들의 조화가 인상적인 클래식 1백88만원 **보타가 베네타**, 강렬한 레드 컬러의 '샌더 힐'을 다한 새틴 핏프스 1백10만원 **프라다**, 에디터 **이혜미**



absolute Splendor

로맨틱한 사랑을 유니크한 하이 주얼리로 표현한 반클리프 아펠, 프레셔스 스톤으로 완성된 드라마틱한 까르띠에의 컬렉션,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구찌의 하이 주얼리 론칭까지. 올해 파리의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빛났다.



2019 FW NEW 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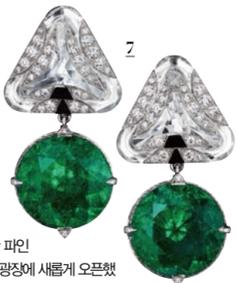
빅 하우스들의 과감한 변신. 새로운 스타일에 관대해져야 할 시간이다.
photographed by jung ji eun



2019년 7월 파리, 하이 주얼리 컬렉션에 빠지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이는 반클리프 아펠은 연인의 진실한 사랑을 시작으로 표현하는 하이 주얼리 컬렉션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여름 반클리프 아펠이 선택한 주인공은 세인스키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너무나 유명한 비극적 사랑의 주인공인 로미오와 줄리엣은 반클리프 아펠의 아름다운 정스톤과 섬세한 세팅으로 다시 태어났다. 반클리프 아펠의 최고경영자 겸 회장인 니콜라 보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컬렉션 테마로 선택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매중이 수년간 작품 활동을 지원해온 세계적인 무용가이자 안무기인 벤자민 밀레피에(Benjamin Millepied)가 최근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대단히 참신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상적인 스타일에서 추상적인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1백여 개가 넘는 유니크 피스로 이루어진 이 컬렉션은 르네상스시대의 화려한 장신구 및 의상과 함께 유명한 발코니 장면, 어슴프레한 새벽, 새들의 지저귀임, 베로니의 정원과 건축물이 어우러져 마치 한 편의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기하학적인 구조와 곡선의 하모니, 매력적인 컬러 조합, 다양한 커팅과 세팅 기법으로 표현한 입체감과 원근감 등 반클리프 아펠의 이 새로운 테마 컬렉션은 영원한 사랑의 열정을 하이 주얼리에 담아내는 이들을 매혹한다. 까르띠에가 새롭게 선보인 매그니튜드(Magnitude)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기존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에서 보기 드문 프레셔스 스톤과 파인 스톤의 조화로운

만남을 선보였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소재를 결합한 대담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에서 까르띠에 매종의 지질 줄 모르는 혁신을 엿볼 수 있다. 매그니튜드 컬렉션은 여섯 가지 주얼리로 이루어져 선보였으며, 이들은 우주를 축소한 소유주를 대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등 찬란하고 가치 있는 스톤과 오팔, 루빌 퀴츠처럼 흔히 사용하지 않는 정스톤이 대조적인 매력으로 균형을 이루며 빛과 음영, 불투명함과 투명함이 서로 교차하며 어우러져 고유의 개성을 창조해냈다. 덕분에 그 어떤 컬렉션보다 드라마틱하고 대담한 아름다움으로 또 한번 까르띠에의 매력에 빠지게 한다. 이탈리아 리사네 브랜드 구찌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디자인한 파인 주얼리와 하이 주얼리만을 위한 부티크를 하이 주얼리의 상징적인 중심지, 파리 방돔 광장에 새롭게 오픈했다. 첫 번째 컬렉션인 호르투스 델리키움(Hortus Deliciarum)을 위해 알레산드로 미켈레는 유니크한 스톤을 직접 공급받아 디자인했다. 하이 주얼리로 표현한, 마법의 동물들이 살고 있는 구찌 주얼리의 신화적인 정원은 소비 료용과 함께 감동한 카리스마를 품고 있다. 허니 칼러 계열의 임페리얼 토포즈, 블랙 로제 토포즈, 블랙 그린 투르말린, 만다린 가닛 등 다채롭고 화려한 컬러의 원석이 모여 꽃이 만개한 몽환적인 정원을 떠올리게 한다. 독보적인 컬러감이 돋보이는 기존 구찌 부티크와는 달리, 파리 방돔 광장 16번지에 위치한 부티크는 '외외로' 우아하고 차분하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가장 돋보이는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비전, 구찌의 노하우, 그리고 하이 주얼리의 경이로운 세계. 이들이 결합된 구찌의 또 다른 도전은 모든 이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게 충분하다.



1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인 베로니의 건축물을 영감시키는 베로니 네크리스. 눈부시게 빛나는 23,867캐럿의 블루 사파이어를 맨드린트 중앙에 세팅했으며, 세 가지 톤의 블루 칼라로 네크리스에서 파져 나가는 서로 다른 사파이어가 매력을 더한다. 2, 3 0번 반클리프 아펠 컬렉션의 주인공인 로미오와 줄리엣 클립, 골드 망토를 입고 부케를 건네는 로미오와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줄리엣이 연출하는 로맨틱한 장면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4 로미오와 줄리엣을 표현한 환상적인 컬러감의 알라스트. 5 까르띠에 유마 링(YUMA Ring). 플라티넘, 총 4.21캐럿의 쿠션형 핑스 및 브라운 톤 옐로 다이아몬드 2개, 브라운레드 컷 옐로 다이아몬드, 옐로 다이아몬드 슬라시, 브라운레드 컷 다이아몬드로 완성했다. Vincent Wulverjck & Cartier 6 까르띠에 아펠리 네크리스(APHELIE Necklace). 까르띠에는 핑크 골드 네크리스의 맨드린트를 완성한 스톤으로 골든 브라운 루빌 퀴츠를 선택했다. 이 매력적인 스톤은 견고한 아펠다공과 신비로운 소재, 따뜻한 컬러, 투명함과 깊이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시선을 사로잡는다. Iris Veltheo Cartier 7 까르띠에 테이아이 어링(THEA Earrings). 플라티넘, 총 13.66캐럿의 콜롬비아산 에메랄드 2개, 조각된 록 크리스탈, 오픈스, 브라운레드 컷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다. 8 엔드러한 가늘고 우드 캐비닛이 차분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파리 방돔 광장의 구찌 하이 주얼리 부티크 내부. 9, 10 구찌만의 독특한 화려함을 담은 하이 주얼리 컬렉션.

비한신적인 올 클리워 프린트 패턴 코트, 보디슈트, 핑프스 모두 가격 미정
0 몽클레르 리처드 빈.



(왼쪽) 라이트 그린 코트 3백49만원,
브라운 재킷 2백75만원, TB 로고
패턴 셔츠 1백88만원, 스카트
1백30만원 모두 **바버라**.
(오른쪽) 오렌지 컬러 재킷 3백92만원,
팬츠 1백15만원, 스트라이프 셔츠
99만원, 바건디 웨이스트 밴드
19만원, 가죽 로고 장식 벨트 57만원
모두 **산바토레 레디미오**.



블랙 새틴 셔츠 1백79만원,
민트 새틴 스카트 3백92만원,
블랙 펌프스 1백215만원
모두 **보테가 베네타**.



(왼쪽) 블랙 양사 다타임 톱, 시스루 스카트, 쇼츠 모두 가격 미정 **벤디**. 블랙 스웨이드 부츠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오른쪽) 블랙 리본 장식 드레스 2백만원 **프리다**, 브라운 스웨이드 부츠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골드 트윈드 재킷, 스카트, 메탈 소재 네오리스 모두 가격 미정 **사벨**. 이어링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오렌지 프린트 셔츠,
블랙 레더 스카트, 블랙 사이하이
부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이어링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레오파드 패턴 블라우스,
블랙 & 옐로 레더 스카트
모두 가격 미정 루이비통.

블루 그린 컬러 니트 카디건,
재킷, 터틀넥, 스카트, 레깅스
모두 가격 미정 **만스미라**,
깃털 장식 힐 가격 미정
스튜디오 와이즈먼.

메탈릭 롬 2백20만원,
그레이 스카트 2백80만원
모두 **구찌**, 골드 스트랩 힐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헤어 김우준
메이저업 이봄
모델 Diana Tagai, Kamila Charshina
어시스턴트 김찬민, 김승준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0 몽클레르 리처드 빈 02-514-0900
보태가 베베타 02-3438-7682
바버리 080-700-8800
삼보트레 페라가모 02-2140-9664
시켈 080-200-2700
렌디 02-2056-9023
구찌 1577-1921
프라다 02-3442-1830
에르메스 02-542-6622
루이 비통 02-3432-1854
만스미라 02-3467-8326
스튜디오 와이즈먼 02-3449-5903

SPEEDMASTER collection

(우부터) 지름 38mm의 스틸 & 세드나 골드 케이스에 카푸치노 다이얼과 타키퍼 스케일의 브라운 알루미늄 링을 장착한 남녀 공용 스피드마스터 38 코-엑시얼 크로노그래프 카푸치노 7백만원대, 스물세칸즈, 30분 카운터, 12시간 카운터, 날짜창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오말 샤프 클러 다이얼을 장착한 스피드마스터 레이싱 코-엑시얼 크로노그래프, 남성 손목에 적합한 지름 40mm 사이즈로 코-엑시얼 칼리버 3330으로 구동한다. 6백만원대, 달 탐사 시 사용한 유사 깊은 핸드와인딩 크로노그래프 칼리버 1861을 적용한 스피드마스터 문위저 프로페셔널 크로노그래프, 지름 42mm의 스틸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타키퍼 스케일을 새긴 블랙 베젤과 다이얼이 어우러져 멋스럽다. 6백만원대, 모두 오메가.



make your
Moments

우주, 해양 등 미지의 세계를 향한 대담한 탐험 역사를 상징하는 오메가 스피드마스터와 씨마스터, 각 컬렉션을 대표하는 아이코닉 & 뉴 타임피스의 감각적인 자태.

photographed by park jac yong

© sponsored by OMEGA



SEAMASTER collection

(우부터 시계 방향) 물결 패턴을 2인한 화이트 세라믹 다이얼에 슈퍼 루미노바 채리한 아워 마커와 핸드, 다이얼 스케임을 표시한 블랙 세라믹 베젤, 카타만 날짜창을 더해 다이버 워치의 면모를 강조한 씨마스터 다이버 300M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케이스 지름 42mm로 55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300m 방수 기능을 제공하는 오메가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800을 탑재했다. 6백만원대, 지름 44mm의 스틸 케이스에 블랙 세라믹 다이얼을 더한 씨마스터 다이버 300M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크로노그래프, 3와 9시 방향에 각각 워터한 12시간 및 60분 카운터가 균형을 이루며 정교한 타임존 기능을 제공한다. 9백만원대, 화려한 오렌지 컬러 인테스와 단방향 베젤, 상색 스틸로브 니트 스트랩이 어우러진 스타워치시안 디자인이 돋보이는 씨마스터 플래닛오션 600M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600m 방수 기능을 제공하며 지름 43.5mm 사이즈로 남성은 물론 여자까지 워치를 즐기는 여성도 착용 가능하다. 7백만원대, 레드 컬러로 채리한 GMT 시계를 기준으로 서머 타임을 적용하는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를 각각 상하·하루 컬러로 표시해 세계 각지의 시간을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씨마스터 이쿠이티라 150M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GMT 월드티머, 다이얼 중앙에 배치한 24시간 글라스 링은 낮과 밤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며 레이저 가공으로 표현한 푸른 바다와 태풍 모티프가 아름답다. 1천1백만원대, 모두 오메가, 문의 02-511-5797(오메가 상담 부티크) 애틀리 이비비

the great Challenge

IWC와 실버 스피트파이어의 공통점은 공학과 정밀성에 대한 애정. 이는 성능이 가장 뛰어난 시계와 최고의 항공기를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두 영국 조종사가 실버 스피트파이어를 타고 세계 일주를 시작한다. 수십 년 동안 그래온 것처럼 이들의 손목엔 당연히 IWC 파일럿 워치가 자리하고 있다.



곳우드를 선택한 IWC

오랜만에 찾은 런던은 낮은 하늘을 나는 새처럼 소년 같았다. 주말 런던 자전거 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도시 곳곳의 교통이 통제되었고, 건축학적으로 40가지 놀라움을 품고 있다는 빅벤은 보수 공사 중이라 2021년까지 볼 수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8월 한여름이 이렇게 쌀쌀할 수가! 그런 런던을 뒤로하고 IWC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찾은 곳우드는 친절한 할머니 같은 느낌이었다. 런던에서 차로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곳우드는 전형적인 유럽의 여유로운 시골 마을. IWC가 올해의 가장 큰 프로젝트인 더 롱기스트 플라이트의 시작을 함께하는 장소로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두 조종사 스티브 볼트비 브룩스(Steve Boulton Brooks)와 매트 존스(Matt Jones)의 볼트비 항공 학교 비행장 때문이었다. 이 학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인된 스피트파이어 교육 학교로, 당초 조종사를 위한 전문 훈련 시설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비조종사의 출입 허가 승인을 받아 항공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볼트비 항공 학교 설립자 중 한 명인 스티브 볼트비 브룩스는 헬리콥터로 북극에서 남극까지 비행한 최초의 파일럿. 그리고 학교의 상무이사로서 있는 매트 존스는 현재 가장 많은 비행 경험을 보유한 스피트파이어 파일럿 중 한 명이다.

더 롱기스트 플라이트 프로젝트

스티브 볼트비 브룩스와 매트 존스, 이 2명의 파일럿은 76년 전 제작된 스피트파이어를 복원해 43,000km 이상의 거리를 운항하며, 30여 개국을 비행하는 세계 일주를 계획했다. 이 여정은 총 1백여 개의 비행 구간으로 나뉘는데, 추운 러시아, 덥고 습한 아시아, 사막 모래 폭풍 등 항공기 뿐 아니라 파일럿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도전이기도. 잉글랜드 남부 곳우드에서 아이슬란드를 거쳐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한 후 알래스카와 러시아를 거쳐 일본, 그리고 동남아, 인도를 지나 다시 유럽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스티브

볼트비 브룩스와 매트 존스는 번갈아가며 이 세계 일주를 진행하는데, 영화 제작자 벤 어리와 카메라맨 존 딘스는 호위 항공기에 탑승해 일주를 기록한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항공기는 Mk. IX 스피트파이어로 기종 등록 번호는 MJ271. 1943년에 제작된 것으로 일반 항공기와 다르게 영국 왕실 공군을 위한 전투기로 제작된 것이라 항속거리에 제한이 있다. 비행기의 연식을 고려했을 때 2019년 현재 세계 일주를 위한 유지 보수는 시작부터 결과를 알 수 없는 도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원을 위해 전면 분해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약 8만 개의 리벳을 세밀하게 점검·청소했고, 일부는 교체하기도 했다. 그 과정 중 정확성으로 유명한 IWC는 비행기의 모든 부품을 X-레이 촬영까지 하며 점검했다. 항공기에 원래 있던 녹색색을 유지하면서도 거울과 같은 마감 효과를 내기 위해 특별한 과정도 거쳤는데, 약 14명의 전문가가 투입되어 복원에만 무려 2년이 걸렸다고. 그러나 구조상 예비 탱크를 장착할 수 없어 이 긴 여정 동안 750km마다 연료를 보급해야 하며, 25시간 비행 후에는 반드시 수리를 거쳐야 한다. 이외에도 스피트파이어가 착륙하는 30여 개국의 각기 다른 규정과 법률을 조율하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다고. 긴 준비 기간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는 더 롱기스트 플라이트 프로젝트를 앞두고 매트 존스는 “엄청난 모험을 계획할 때 시간은 매우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시간에 쫓기기보다는 자꾸러는 멋진 행성 지면 위를 낮게 날며, 세계의 놀라운 경치를 눈에 담은 주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시간을 아껴가야겠지요”라고 말했다. 또 스티브 볼트비 브룩스는 “기능과 형태의 완벽한 조화가 상징적인 디자인 작품 중 하나인 스피트파이어와 인간의 관계를 딱 알맞게 설정했을 때 엄청난 만족감을 느낍니다. 스피트파이어와 IWC는 움직임의 자유와 즐거움, 정밀함과 힘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냈는데서 공통점이 있죠. 이처럼 스피트파이어와 IWC의 시계는 매력적인 유산을 지닌 중독성 있는 기계입니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 sponsored by IWC SCHAFFHAUSEN



1 두 파일럿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더 롱기스트 플라이트 에디션. 2 더 롱기스트 플라이트 에디션 뒷면에는 기종 번호와 함께 더 롱기스트 플라이트 프로젝트의 로고를 인그레이빙했다. 3 실버 스피트파이어와 함께할 두 조종사, 스티브 볼트비 브룩스(좌)와 매트 존스(우). 4 더 롱기스트 플라이트 프로젝트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한 영국 공군 악단 공연. 5 0번 프로젝트의 주인공, 은빛 광택이 나는 알루미늄이 아이코닉한 실버 스피트파이어. 6 출항 당일 세라믹-타일 줄기는 IWC 브랜드 앰배서더 로저앤더 피아르(Rosamund Pike).



세계 일주를 3시간 앞둔 스티브 볼트비 브룩스와 매트 존스에게 묻다

Q **다양한 오리진 스피트파이어를 어떻게 구하셨나요?** 1950년대 이 항공기가 네덜란드 공군에서 퇴역했을 때 암스테르담 스토폴 공항 근처 항공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이후 영국의 한 수집가가 구매했고, 몇 년 전에 우리가 구매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복원해 세계 일주를 떠납니다. 세계 일주 자체도 큰 도전이지만, 깊은 역사를 지닌 항공기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부품 또한 교체하기보다는 최대한 기존 부품을 유지한 채 복원하는 과정 자체도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날개 등 한두 개 요소를 교체하고는 모두 기존 부품입니다. 비행기의 모든 금속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Q** **이번 원정 중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일까요?** 날씨입니다. 저희가 비행해야 하는 몇몇 지역은 420~800km 거리에 겨우 하나의 이착륙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고, 날씨에 대해 알려주는 관측소도 없는 등 어려운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출발 후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항공기의 연료 유지도 중요합니다. 스피트파이어는 현대의 다른 항공기와는 매우 다른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곳에 연료를 준비해두어야 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때때로 연료가 도착하려면 지금 운송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달 전부터 연료를 운반했습니다. 일정한 길로 운반되는지, 배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곳으로 갈 때는 중간에 연료가 없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했죠. 그런 아나바라 비행하는 각 국가에 대한 상공 비행 허가, 각 위치 착륙 허가, 승무원의 비자, 숙소, 그리고 누군가 이를 경유를 대비해 예비 조종사와 기술자가 대기하도록 계획하고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Q** **그동안 경험한 많은 비행 중 어떤 여정이 특별한 이유는 뭔가요?** 스티브 볼트비 브룩스, 실버 스피트파이어의 정열한 이름입니다. 오늘날까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아이코닉하고 유명한 비행기 중 하나인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세계 각지를 비행하는 것은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기도. **매트 존스**, 자에게 비행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기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수록 날개는 마치 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운행하지 않고 박물관에 보관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뒤로하고 살아 숨 쉬게 하며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영감이자 믿지 않을 정도로 특별한 비행이죠. 이런 의미를 이해하는 IWC가 이를 위해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기쁩니다. **Q** **파일럿에게 시계는 어떤 의미인가요?** 파일럿의 모든 것이지요. 비행 중 수많은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가구나 장비에 의존해야 하는데, '시간은 그 모든 걸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필수 기능을 모두 담은 시계 자체도 매우 중요하죠. IWC의 파일럿 워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시계입니다.



위대한 여정의 시작

IWC는 지난 8월 5일 곳우드 비행장에서 약 4개월간의 대장정이 될 더 롱기스트 플라이트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출항 전날 저녁에는 항공기 앞에서 만찬을 열었는데, IWC 브랜드 앰배서더와 관계자가 자리해 라이브 음악과 에어쇼 등 풍성한 볼거리를 즐겼다. 출항 당일에는 IWC와 볼트비 항공 학교, 그리고 세계 각국의 매체 관계자 약 4백 명이 프로젝트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IWC의 CEO 크리스토프 그레인저-헤어(Christoph Grainger-Herr)는 “항공 역사상 스피트파이어로 이렇게 길고도 고된 여정을 이어간 사례는 없습니다. 스티브 볼트비 브룩스와 매트 존스, 그리고 모든 지상 관계자들의 성공을 빕니다”라고 말했다. 스티브 볼트비 브룩스는 “지난 몇 달은 강렬했고, 활동적이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위대한 모험을 시작하고, 실버 스피트파이어의 영광을 전 세계와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것은 엄청난 업적이며,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건 큰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제 역사를 써 내려갈 시간입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뒤이어 모두의 응원과 함께 실버 스피트파이어는 영화처럼 이륙해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조종사를 위한 시계

파일럿 워치 타임존 스피트파이어 더 롱기스트 플라이트 에디션은 스티브 볼트비 브룩스와 매트 존스의 세계 일주 비행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제품이다. 시침, 24시간 디스플레이 및 날짜가 동시에 자동으로 회전하며, 베젤을 회전시키면 다른 시간대로 간편하게 옮겨 갈 수 있다. 24시간 디스플레이가 다이얼 아래 회전 디스크 형태로 설계되어 가독성도 높다. 새로 개발한 IWC 자체 제작 82760 칼리버는 내마모성 세라믹 부품으로 구성된 펠리톤 와 인딩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60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블랙 다이얼과 그린 텍스타일 스트랩의 조화는 스피트파이어 조종석 컬러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뒷면에는 제품 번호와 함께 더 롱기스트 플라이트 프로젝트의 로고가 인그레이빙되어 있어 더욱 특별하다. 전 세계 2백50퍼스만 한정 생산한다. 문의 02-3440-5876 **에디터 장미윤**

INTERVIEW



1 천사의 머릿결을 형상화한 옐로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수비 당헤 네크리스(1957)와 핑크 골드와 화이트 골드의 별동형 모양 메탈로에 아이림(1966), 2 8인안 복주머니 워 부케 모양 클립(1933), 3 카보숑 컷 루비가 시선을 사로잡는 클립 버드(1957), 4 루비와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리브 클립(1959)과 크로스드 리브 아이림(1958), 도자기와 순백의 한지 일사귀 오브저가 아우라져 더욱 품격 있다, 5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로 표현한 플라워 클립(1966), 6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마티크 링(1973), 7 세련된 스타일링 세팅의 불행양태 도끼레 한지 공예 이은제1~4번 이미지 컷



2 3

a brilliant Heritage

경이로운 주얼리의 세계로 이끄는, 반클리프 아펠의 역사가 담긴 헤리티지 컬렉션이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여 또 한번의 레전드를 완성했다.



4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 헤리티지 컬렉션

프랑스 하이 주얼리 & 워치 매종 반클리프 아펠이 매종의 역사가 담긴 헤리티지 컬렉션(Heritage Collection)을 한국가 구박물관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선보여 주얼리 애호가들의 눈길을 끌었다. 반클리프 아펠의 헤리티지 컬렉션은 1920년대부터 1990년대에 탄생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으로, 각각의 작품은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 '역사의 한 조각'이라 할 만큼 전통과 스토리를 담고 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매종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1920년대부터 1990년대 까지 탄생한 매종의 컬렉션을 찾아내고 수집했다. 이렇게 시작된 매종의 노력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진귀한 하이 주얼리를 수집해 반클리프 아펠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헤리티지 컬렉션으로 결실을 맺었다. 헤리티지 컬렉션은 공개되기 전, 매종의 방대한 아카이브를 통한 감정을 거쳐 이를 통해 가치를 입증받는다. 모든 피스가 그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는 헤리티지 컬렉션은 자연, 쿠틀러, 댄스, 상상의 세계 등 그 어떤 것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끊임 없이 새롭게 창조되는 매종의 창의성을 표현한다. 또 동시에, 사정착하고 사적인 반클리프 아펠만의 아름다움을 충실하게 간직하고 있으며, 매종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정교함으로 시대를 뛰어넘는 우아함을 구현한다. 이렇게 반클리프 아펠의 헤리티지 컬렉션은 한 편의 시나 영화를 보는 듯한 스토리텔링으로 주얼리 그 이상의 매력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헤리티지 컬렉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반클리프 아펠의 대표작인 하이 주얼리를 선보이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헤리티지 컬렉션 약 40점을 지난 5월 16일 한국가박물관에서 먼저 선보였는데, 한국가박물관은 한옥과 목가구가 조화를 이루며 그 속에 깃든 한국의 전통문화와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로, 매종 반클리프 아펠이 추구하는 전통과 장인 정신의 가치에 대한 존중과 맥을 같이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다. 매종의 매혹적인 컬렉션들은 메인드(Mains d'Or™)라 불리는 매종 워크숍 장인들의 탁월한 노하우에 의해 탄생했다. 한국가박물관이라는 지극히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공간에서 만난 반클리프 아펠의 헤리티지 하이 주얼리들은 그 어느 컬렉션보다 특별했다. 한국의 고가구, 소품과 함께 동서양의 정서가 아우라져 우아한 미감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반클리프 아펠의 끊임없는 열정이 전통과 아우라져 보는 이들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헤리티지 컬렉션. 한국가박물관에 이어 오는 9월 31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반클리프 아펠 부티크에서 고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5



6

아름다움에 대한 열정, '최고'의 헤리티지가 되다

Q 헤리티지 컬렉션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판매 가능한 피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착용 가능한지,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죠. 반클리프 아펠은 1906년부터 많은 제품을 제작해왔는데, 모든 피스가 아주 멋지지만 시대에 따라 스타일이 변하기 때문에 요즘 착용할 만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기준은 미학과 착용성입니다. 그리고 현재 트렌드도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 클래식함도 추구하는데, 루도나 미스타리 세팅, 플라워 모티브와 같이 반클리프 아펠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요소가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찾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운이 좋으면 멋진 컬렉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과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합니다. Q 주얼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반클리프 아펠은 전시회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는 뮤지엄 컬렉션도 있고, 많은 수집가가 헤리티지 피스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제가 박물관 큐레이터에게 주얼리 전시회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주얼리는 특권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주얼리만을 위한 전시회보다는 유럽과 한국의 도자기를 비교하는 전시회 등을 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얼리는 비싸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과 고객, 직원에게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스톤 산별과 세공에 기울이는 노력을 보여주지 위해 파리 워크숍에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주얼리가 사회 특권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Q 하이 주얼리를 '예술'이라고 규정할 수 있나요? 만약 한 단어로 표현해주시다면요? 주얼리는 '장식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얼리의 경우도 가구처럼 스톤 세터나 디자이너 등이 참여하는 공동 창작물입니다. 주얼리를 예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물론 주얼리 예술가도 있습니다), 반클리프 아펠에게 주얼리는 장인 정신의 표현이며, '정교함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반클리프 아펠은 디지털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반클리프 아펠도 디지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에 반클리프 아펠이 어떤 매종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부티크를 방문해 제품을 접하고, 특별한 교육을 받은 직원들과 접촉할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반클리프 아펠에 대한 경험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저희도 최대한 고급스러운 온라인 쇼핑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부티크에 직접 오셔야 느낄 수 있는 경험은 온라인으로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헤리티지 컬렉션 전시 같은 특별한 경험은 온라인을 통한 경험과는 다르죠. Q 진정한 럭셔리란 어떻게 완성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럭셔리는 우선 '희소성'이 있어야 하고, 높은 장인 정신이 반영된 하이 퀄리티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퀄리티에 있어 차별화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인 '독창성'이 가치를 완성하죠. Q 헤리티지 컬렉션 전시 공간인 한국가박물관을 통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느끼셨나요? 제가 한국적인 아름다움에서 좋아하는 부분은 단순미와 세련됨입니다. 이 박물관을 보면 여러 시대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마치 서울 한가운데에 천국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서울은 매우 활동적인 도시이고, 고층 빌딩이 많은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곳인데, 그런 도시 한가운데서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이 들게 하고, 눈과 영혼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저는 이곳에 처음 왔을 때부터 사랑에 빠졌습니다. _니콜라 루싱거(Nicolas Luchsinger, 반클리프 아펠 아시아퍼시픽 회장)

INTERVIEW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총 0.347캐럿의 다이아몬드 3개의 빛이 한데 어우러져 화려함이 돋보이는 달라이트 컬렉션 링 가격 미정, 엠디루사의 시그니처 라인으로 삼각형 모티브를 규칙적으로 배치한 18K 로즈 골드 0.33캐럿 다이아몬드를 매치한 링과 골드 링 모두 가격 미정, 아름다운 꽃과 잎을 모티브로 한 불꽃 컬렉션의 화이트 골드와 로즈 골드 다이아몬드 링, 0.16캐럿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 링 모두 가격 미정, 다이아몬드를 형상화한 디자인에 다이아몬드를 패베 세팅해 더 시선을 끄는 두 줄 웨딩 밴드 가격 미정, 삼각형 모티브로 장식한 밴드에 0.53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솔리타어 링 가격 미정, 총 9캐럿의 다이아몬드로 불꽃같은 다한 달라이트 컬렉션 링 가격 미정, 엄선된 엘레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핏피 다이아 컬렉션 라인의 목걸이 65만 8천원, 여러 개의 다이아몬드를 규칙적으로 세팅한 18K 로즈 골드 링 42만8천원, 원 포인트 다이아 링 32만8천원, 3개의 다이아몬드를 나란히 세팅한 링 35만8천원, 화이트 골드 링 48만8천원 모두 엠디루사, 문의 1688-5501 에디터 장미윤

everyday Special

해외 각국에서 직접 엄선한 다이아몬드에 국내 장인들의 숙련된 솜씨를 더해 완성한 엠디루사의 주얼리. 중요한 날에만 착용하는 부담스러운 다이아몬드 주얼리가 아닌, 좀 더 실용적이고 세련된 다이아몬드 주얼리를 제안한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엠디루사와 함께하는 특별한 이벤트

Welcome You!

평소에 착용할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주얼리를 원하는 현대 여성의 요구를 파악한 엠디루사는 크게 두 라인을 선보인다. 고가 라인인 브라이덜 컬렉션과 데일리로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다이아몬드 라인인 핏피 다이아 컬렉션.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팝업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 톤칭 기념으로 18K 골드 0.12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네크리스를 5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합니다. * 본 이벤트는 기간 한정 수량으로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0.12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즈 골드 8캐럿 펜던트 네크리스 달링, 0.12캐럿 다이아몬드를 프롬 세팅한 화이트 골드 네크리스 클래시 6, 0.12캐럿 다이아몬드를 8개의 프롬에 세팅한 로즈 네크리스 불꽃. 모두 엠디루사.

Precious for you

탁월한 안티에이징 효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샤넬의 르 리프트 크림을 세럼과 핸드크림 버전으로도 만날 수 있다. 다가오는 추석에 소중한 이들을 위한 선물로도 인정맞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환절기 피부 관리가 고민이거나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 이들이라면 샤넬이 제안하는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3종이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다. 새롭게 출시한 르 리프트 세럼은 항산화 효과로 잘 알려진 불활성 페퍼민트 PFA 추출물을 함유했으며,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해 피부를 보호한다. 가볍고 부드러운 제형이라 촉촉하게 피부를 흡수해 신뜻하게 마무리되는 것도 특징. 세럼을 흡수한 피부에 르 리프트 크림을 덧발라주면 피부 노화 방지에 더욱 효과적이다. 이번에 공개한 르 리프트 라 크림 당 핸드크림도 주목할 만하다. 제품에 함유된 식물성 알팔파 성분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재생을 돕고 피부를 탄력 있고 매끄럽게 관리해준다. 자연 유래 감초 추출물이 알려진 생성을 억제하는 효소와 빈응해 디크 스킵을 감소시키며 미모사, 호호바, 해바라기 왁스로 오랫동안 촉촉하고 부드러운 손으로 유지해준다.

문의 080-332-2700 에디터 **이주이**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꾸준히 사용하면 탄력이 되살아나고 매끄럽고 탭 탭한 피부결을 유지할 수 있는 르 리프트 세럼 30ml 21만4천원, 조약돌 모양 패키지의 핸드크림 르 리프트 라 크림 당 50g 8만7천원, 크림과 크림 리치, 두 가지 텍스처로 제안해 피부 타입에 맞춰 선택 가능하며, 부드러운 포플러로 자극 없이 비둘기 수 있어 민감한 피부에도 적합한 르 리프트 크림 50ml 21만원, 모두 샤넬.



● sponsored by CHANEL

eyes Perfector

아름다움을 간직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바로 생기 넘치는 눈가 피부. 이를 위해 라프레리는 세포 하나하나까지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아이 리프팅 세럼을 출시한다. 캐비아 추출물을 베이스로 혁신적 기능까지 더한 스킨 캐비아 아이 리프트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 중 하나인 눈. 영혼의 거울이라 여겨지는 눈을 감싸는 눈가에는 22개에 이르는 근육이 위치하며 사람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만 번 정도 눈을 깜빡인다. 결과적으로 연약한 눈가 피부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쉽게 탄력을 잃고, 눈꺼풀과 눈썹에 가해지는 중력의 영향은 가속화되며, 미세한 라인과 주름이 더해져 얼굴에서 노화의 사인을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나타내게 된다. 캐비아의 효능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코즈메틱이 지닌 잠재력의 범위를 넓혀온 라프레리는 캐비아 프리미엄을 담은 아이 케어 제품 개발에 집중했다. 그리고 생명공학 연구를 바탕으로 캐비아가 지닌 우수한 리프팅 효능을 적극 활용해 눈가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가히 궁극의 아이 세럼이라 할 만한 스킨 캐비아 아이 리프트는 캐비아 프리미엄에 풍부하게 함유된 라프레리 엑스클루시브 쉐룰라 콤플렉스의 두 가지 강력한 포플러를 조합해 눈가 리프팅과 탄력 고민에 대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한다. 한편 스킨 캐비아 아이 리프트의 혁신적 면모는 포플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리퀴드 리프트 형식의 보틀 디자인 역시 감탄을 자아내는 요소. 캐비아에서 영감을 얻어 라프레리만의 아이 코너한 골드 캐비아 비즈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고안한 패키지는 보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온전히 경험하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포플러의 순도를 유지하기 위해 보틀 내 구분된 2개의 내실에 담은 캐비아 비즈와 핑크 젤 세럼은 특허출원 중인 독보적인 메커니즘을 적용, 제형을 펌핑할 때마다 부드럽게 블렌딩된 상태로 배출된다. 깨끗하게 세안을 마친 피부에 에센스 오브 스킨 캐비아 아이 콤플렉스 몇 방울을 발라 눈가 피부를 진정시킨 후 실크처럼 부드러운 포플러의 스킨 캐비아 아이 리프트를 눈꺼풀에서 눈 바깥쪽까지 부분적으로 짚어 발라준다. 이후 톡톡 두드려 제품을 흡수시키면 눈가 피부가 금세 리프팅되는 느낌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스킨 캐비아 리치 아이 리프트 크림으로 한 단계 더 완벽하게 마무리하면 아무리 예민하고 약한 눈가 피부라도 큰 고민 없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다.

문의 02-511-6626 에디터 **이혜미**



● sponsored by la prairie

● sponsored by la prairie

1 눈가 전체에 탄력 개선과 피링 효과를 선사하는 스킨 캐비아 아이 리프트. 20ml 라프레리. 2,3 스킨 캐비아 아이 리프트는 골드 캐비아 엑스클루시브 쉐룰라 콤플렉스인 캐비아 비즈를 함유한 제품이다.



이트 바젤 칼렉타스 리운지에 마련한 라프레리 파빌리온.



전시에 참여한 다니엘라 드로즈의 사진 작품.

La Prairie in Art Basel 2019
스위스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라프레리는 지난 2019년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2019 아트 바젤의 컬렉터스 리운지를 통해 3명의 스위스 여성 사진작가와 함께 《Eyes in Focus》 전시를 진행했다. 시선의 아름다움, 신비함, 시간을 초월한 영원성의 탐구라는 주제 아래 다니엘라 드로즈(Daniela Droz), 남사로 이바(Namsa Leuba), 센타 시몬드(Senta Simond) 등 스위스 로잔 예술대학교를 졸업한 떠오르는 신진 사진작가가 포착한 칸텔라리 포토그래피를 전시한 것. 이들의 독창적인 접근과 해석 방식은 스위스의 미학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하는 한편, 여성으로서 자신 시선의 힘에 관한 특별한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라프레리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 그레그 프로드롬미데스(Greg Prodromides)는 "다니엘라, 남사, 센타와 함께 파트너로 작업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들의 선구적인 작품은 대담함을 추구하는 라프레리의 헤리티지와 완벽히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 브랜드는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의 영원성을 지키는 동시에 진보적인 젊은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라는 말로 이번 전시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밝혔다. 각각의 사진은 시선 안에서 삶과 힘, 중요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으며, 이는 라프레리가 출시하는 혁신적인 신제품 스킨 캐비아 아이 리프트가 추구하는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 sponsored by la prairie

magical Change

건조한 가을바람에도 끄떡없는 촉촉함과
아침저녁 큰 기온차에도 흔들리지 않는 탱탱함.
주름 개선, 수분 충전, 노화 방지, 피부 재생 등
우리가 원하는 딱 그것을 담은 8개의 고기능성 크림.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스티 로더 리뉴트리브 얼티메이트 리프트 리제너레이팅 유스 아이크림** 다섯 가지 핵심 효능이 다각도를 잡아주고 눈가의 잔주름을 없애며 부기를 완화해준다. 남양 진주 성분 덕에 눈가에 환한 브라운닝 효과가 지터할 수 있는 아이크림. 15ml 22만5천원, 문의 02-6971-3212

리프티비 벨루아 크림 플루이드 레어 1은수를 얻기 위해 10톤의 광석이 필요한 귀한 플루이드 성분 함유. 보습 및 보호 효과는 물론 영양소 흡수 능력까지 높여 피부에 젊음을 선사하는 최상의 크림. 50ml 11만5천원, 문의 02-511-6626

시슬리 시슬리아 탭타고알 애티어 아주 피진 컨센트레이티드 세럼 엘라스틴 생성의 근원을 일깨우고 피부 긴장력을 강화하는 데 완벽한 효과를 발휘하는 세럼. 게다가 극각적인 3D 텐서 효과를 주는 활성 성분인 쿠리 씨 추출물을 함유해 얼굴선이 살아난다. 덕분에 탄력 있고 견고하며 탱탱해진 피부를 확인할 수 있다. 30ml 53만원, 문의 080-549-0216

골레드보 보메 라 크렘 일무이네이팅 콤플렉스X가 세포 스트레스를 차단해 표피를 빛나게 해주고, 시호 추출물이 진피를 밀도 있게 채워줘 안에서부터 탄력 피부로 만들어준다. 저자극 관리 시 맨 마지막 단계에서 전후 17개 양만큼 얇아내 마사지하듯 바른면 골. 50ml 11만9천원, 문의 080-564-7700

샤넬 수블리마지 텍스투르 드 크렘 전 세계 1백17종 비닐라 중 샤넬 연구소가 택한 비닐라 플레-폴리아의 모든 활성 성분을 담았다. 피부 재생과 회복, 보호 작용이 탁월해 충분한 휴식을 취한 듯 벨벳처럼 부드럽고 환한 피부로 되돌아준다. 50ml 65만7천원, 문의 080-332-2700

데코르테 AQ 크림 앰플루트 X 스트레스와 부족한 잠, 건조한 날씨, 다양한 유해 환경 등 피부를 지키게 하는 많은 요소를 차단해 생기와 탄력을 되찾아주는 피부로 개선했다. 에센셜 오일을 함유해 유아하고 편안한 향으로 피부와 마음에 여유를 주는 것도 특징. 45g 58만원, 문의 080-568-3111

조르지오 아르마니 크레마 내리 수프림 리바이빙 크림 건조하는 부활초 중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미로탕누스 플라베리플라에서 추출한 리바이빙 크림X가 피부 산화 속도를 늦춰주고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인티메이징 크림. 50ml 49만원, 문의 080-022-3332

입센로양 오 후즈 모로코의 아틀라스 고원에서 1년 중 며칠 동안 이슬에만 만개하는 귀한 꽃, 시모란을 담았다. 피부 필수 에너지를 충전해 주름, 탄력, 피부결, 보습 등 피부 노화에 따른 고민을 개선해준다. 50ml 52만원, 문의 080-347-0089 에디터 장라윤

editor's Pick

강렬한 자외선과 실내의 온도차로 여름 동안
지친 피부에 활력과 생기를 더해줄 가을 뷰티
신제품 13.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샹티카일 레디 투 퍼플 퍼플드 브로치** 작은 새를 형상화한 귀여운 오픈워크 브로치의 장치는 다른 아닌 향수, 립틴 케이스 카바를 열린 펄 퍼플 퍼플을 넣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드러나는데, 브랜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향인 도 스킨, 플레르 드 보, 오 로즈, 세 가지 향 중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라부르 타입 향수로는 또 다른 기쁨으로 하루 종일 은은한 향기를 물에 차고 싶다면 완벽한 선택이 될 듯. 14만5천원, 문의 02-3479-6049. *by 에디터 이혜미*

샤넬 루주 알렉시드 리프팅 #816 프라쉬 레드 컬러 피우더로 입술을 마무리한 듯한 느낌, 바를 때는 촉촉하고 오일리한데, 바른 후에는 마끈거리기보다는 보습보습해 느낌이 좋다. 워터프루프 기능을 갖추어 잘 빠지지 않으며, 8시간 동안 지속된다. 6ml 4만5천원, 문의 080-332-2700. *by 에디터 장라윤*

샤세이드 하나 초퍼기 하계 플리싱 페이스 브러쉬 모델보다 얇고 벨벳보다 부드러우며 밀도 높은 레드 컬러 모를 장착한 페이스 브러시. 피우더 재질의 메이크업 제품을 바를 때 브러시를 등돌리거나 터치하면 피부에 자연스러운 윤광이 살아난다. 얼굴뿐 아니라 보디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밖에 원하는 방식으로 대체로 응용이 가능할 듯. 무엇보다 모가 한 울도 탈락하지 않는 견고함이 마음에 든다. 5만 원대,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이혜미*

닥터지 로얄 블랙 스네일 아이크림 자생력이 좋은 블랙 스네일과 로열젤리, 블랙베리에서 얻은 꿀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 탄력 및 장벽 강화와 활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끈끈한 재질이 부드럽고 촉촉하게 피착해 피부에 흡수돼 수분을 보다 촉촉히 채워주는 느낌이다. 눈가 주름뿐 아니라 팔자 주름과 이마, 목 등 고민 부위에도 효과적. 30ml 3만8천원, 문의 1811-9415. *by 에디터 이주이*

블리 1803 레부지 퍼팩에 한초 샵 글, 아지 열매를 일린 코프라 등 자연 그대로의 원료를 베이스로 만들었다. 공간에 은은하게 퍼져 다른 향을 막아 버티기에도 좋다. 대리석 케이스는 인테리어 포인트로도 인상적. 약 80~1백 시간 연소한다. 300g 21만5천원, 문의 1544-5114. *by 에디터 장라윤*

에스티 로더 큐어 얼터 연비 오일 인퓨즈드 립 스틱 텍스처가 무겁거나 시럽에 끈적하면 오일은 손이 가지 않는데, 이보카도, 해바라기, 호호바 등 세 가지 식물 오일을 함유한 이 립글로스는 텍스처가 가볍고 부드러워 매우 만족스러웠다. 게다가 스프레이 타입이 아닌 얇고 긴 브러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역시 재능이 최첨단인 느낌. 입술에 즉각적으로 보습 효과를 주어서인지 본인의 립 컬러가 자연스럽게 되 살아났다. 5.8ml 4만3천원, 문의 02-3440-2772. *by 에디터 이혜미*

바이테리 리페리브 브라운닝 CC 파우더 일무이네이팅 컬러 코렉팅 피우더 영감이 풍부하고 세포 재생과 피부 보습 효과가 탁월한 로즈힙 오일을 함유했다. 고운 입자와 자연스러운 컬러감으로 피부 결정을 가려주는 것은 물론, 홍조를 완화해 매끈하고 깨끗한 피부 연출이 가능하다. 피운데이션을 얇게 바른 후 친膚 브러시를 이용해 가볍게 마무리하면 피부에 은은하고 투명한 광채가 흐른다. 10g 8만5천원, 문의 02-2056-1221. *by 에디터 이주이*

수려한 인생 시그니처 엠블 생자위를 로열젤리에 자연 숙성한 성분과 자연산 추출물을 한 병에 가득 담았다. 세안 후 토너로 피땀결을 정리한 다음 크림에 2~3원을 섞어 바르니 하루 종일 탱탱하고 윤기 있는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유입 애플리케이션을 장착한 스포이트 형태의 뚜껑으로 편리하고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 90ml 12만원, 문의 080-023-7007. *by 에디터 이주이*

자형시르 프루미시 #1 에센스 오브 그레이 인제이로 그윽한 노매를 완성해 줄 세안된 그레이 컬러 색도로 구성된 팔레트. 매트, 세틴, 메탈릭, 세 가지 텍스처의 이층 가지 컬러를 하나의 팩트에 담아 활용도가 높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살린 감각적인 블랙 케이스는 내장형 거울까지 갖춰 휴대하기에도 편리할 듯. 6g 9만8천원, 문의 080-801-9500. *by 에디터 이혜미*

나스 하이 피그먼트 쉐도우 아이라이너 #브로드웨이 나스에서 선보이는 16가지 컬러 아이라이너 중 메탈릭 버전이 컬러. 명과 물에 강해 번짐 없는 눈매를 유지해주는데, 젤 타입 포뮬러가 부드럽게 발려 섬세한 연출이 가능하다. 1.1g 3만4천원대, 문의 02-6905-3747. *by 에디터 장라윤*

결함 배워로 골드 레디언스 파운데이션 #00 베이지 피운데이션 특유의 탭 탭 탭 느낌이 부담스러워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제품은 열과 함께 강한 스템프루프 기능을 더해 대다수 지속 시간이 24시간이나 된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수분까지 공급해줘 마음에 든다. 광채와 촉촉한 느낌, 그리고 카바레이크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다. 30ml 11만7천원, 문의 080-343-9500. *by 에디터 장라윤*

포레리 비노수르 S.O.S 인텐스 모이스처라이저 크림 마세라와 수분이 가득한 포도의 영양 샐러이 피부 속 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보리씨 씨 오일이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준다. 가볍고 부드러워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발라는데, 아외 활성으로 장시간 자외선에 자극받은 피부에 들뜬 발랐더니 다음 날 피부가 빠르게 회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50ml 4만5천원, 문의 02-6011-0212. *by 에디터 이주이*

샹타이 쿠마네트 아이 세이드 핑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에디터를 만족시킨 제품. 은은한 핑과 글러 세이드는 사실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눈 위에 착 달라붙어 눈가를 조금 바 꾸고 싶은 날 적절하다. 젤 파우더 형태로 거꾸가 날리지 않아 지속력 역시 우수하다.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고, 다른 색상과 레이어링해도 좋다. 2.5g 7만5천원, 문의 02-517-0902. *by 에디터 이주이*





반클리프 아펠

SHOWROOM

스와로브스키

스와로브스키 타로 매직 컬렉션
타로에서 영감을 받아 행운의 상징인 제비, 지혜를 상징하는 달, 수호를 상징하는 이블 아이 등 다양한 상징을 크리 스틸로 유쾌하게 풀어냈다. 몬타나 블루, 아메시스트 퍼플 등 유니크한 컬러 플레이로 신비한 느낌을 자아낸다. 문의 02-1522-9065

반클리프 아펠 스위트 알함브라 워치 기묘세 기법을 적용한 골드 머더오브필 다이얼이 멋스러운 워치. 브레이슬릿은 옐로 골드 또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알함브라 모티브를 교차 배치해 더욱 매력적이다. 문의 00798-852-16123

몽블랑 1858 오토매틱 1920~30년대 정통 미네르바 배너패치의 전통과 탁월 장선에 대한 헌사로 출시한

1858 컬렉션의 새로운 모델로, 지름 40mm 사이즈의 브론즈 케이스가 포인트. 그린과 카키 컬러 다이얼, 대성당 모양의 루미너스 핸즈, 철도 모양 마넛 트랙 등으로 특별함을 더했다. 문의 1670-4810

오메가 씨마스터 다이버 300M 크로노그래프 블루 케이스 지름 44mm의 크로노그래프 워치로, 다이빙 스케일을 표시한 블루 세라믹 베젤을 장착했다. 블루 세라믹 다이얼에 레이저로 수심 300m를 표현한 상징적인 웨이브 패턴이 특징이며, 세라믹 푸셔에 블루 컬러 포인트를 더했다. 문의 02-511-5797

옴egas 시네마자아 영화예술과의 연결 고리를 강조하며 베를린 국제영화제, 칸 국제영화제 등 전세계에 걸쳐 영화 제작을 후원해온 불가리아 영화계에서 영감을 얻은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인다. 정스톤 커팅과 대담한 컬러 조화가 돋보이는 이 컬렉션은 브라이슬릿, 네크리스 등 다양한 제품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2056-0172

IWC 더 롱가스트 플라잇 에디션 파일럿 스틸브 볼트비 브룩스와 매트 존스의 세계 일주 여행을 위해 특별 제작한 스페셜 에디션. IWC의 독자적인 메카니즘인 팔리톤 와인딩 시스템을 갖춘 자체 제작 82760 칼리버와 특허받은 타임존 메카니즘을 결합했다. 전 세계 2백50피스 한정 출시한다. 문의 02-3440-5876



몽블랑



불가리아



리프레리



샤넬

리프레리 스킨 캐비아 아이 리프트 천연 캐비아 추출물을 함유한 캐비아 프리미어와 셀룰라 콤플렉스의 조합으로 눈가 리프팅과 탄력 고민을 해결해주는 아이 세럼. 팽팡할 때마다 보틀 내 2개의 내심에 담긴 캐비아 비즈, 핑크 젤 세럼이 블렌딩된다. 눈가 전체와 눈썹에 부드럽게 발라주면 효과적이다. 문의 02-511-6626

샤넬 루주 알부르 인크 퓨전 입술에 밀착되는 매트한 텍스처의 립 인크를 출시한다. 일상에서 사용하기 좋은 코랄 컬러부터 과감한 블랙 레드까지, 12가지의 다채로운 컬러 팔레트로 선보이며 워터프루프 기능까지 갖춰 더욱 실용적이다. 문의 080-332-2700

BEAUTY

ARIANA GRANDE
DOCUMENTED BY CRAIG MCDEAN
GIVENCHY.COM



JEWEL&WATCH



오메가



휴고 보스



파비어나 릴리피



보테가 베네타



자방시



마이클 코어스

휴고 보스 2019 F/W 키 룩 2019 F/W 컬렉션에서 현대 여성의 옷장을 묘사하며 캐주얼 웨어부터 비즈니스 웨어까지 다채로운 룩을 선보였다. 실크와 코튼을 혼방한 레드 컬러 스웨터와 바건디 컬러 램 스킨 소재 펜슬 스커트를 매치한 레드 룩을 제안한다. 문의 02-515-4088

파비어나 릴리피 니트 케이프 브랜드의 대표적인 플레타입사를 사용한 부드러운 촉감의 니트 케이프를 추천한다. 그린, 캐주얼, 2가지 컬러로 만나볼 수 있으며 폭스 퍼 소재 장식은

탈착 가능하다. 문의 02-6905-3626

프라다 엠블럼 백 2019 F/W 시즌 새롭게 공개하는 사피아노 소재 플랩 백으로, 전면 로고 클로저가 클래식하다. 길이 조절 가능한 숄더 스트랩을 활용해 크로스백으로도 연출 가능해 다양한 룩에 매치하기 좋다. 문의 02-3442-1830

보테가 베네타 패디드 카세트 백 패딩 디테일과 메탈 트라이앵글 버클 장식이 매력적인 백. 1970년대 럭셔리 카 내부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은 패딩 디테일을 고

유의 인트레이드 기법으로 완성했다. 플래스터, 토파지오, 폰테데 등 총 6가지 컬러로 출시한다. 문의 02-3438-7682

브루넬로 쿠차렐리 버진 울 블레이저 톤 다운된 블루 컬러가 멋스러운 더블브래스트 버튼 장식 블레이저 소매 끝에 모달리 디테일을 더했다. 가벼운 티셔츠부터 데님 팬츠, 슬랙스까지 여러 아이템에 매치하기 좋다. 문의 02-3448-2931

자방시 에센 백 아트 디렉터 클레어 웨이트 켈리가 전

개하는 2019 F/W 컬렉션 '에덴의 겨울'의 새로운 백을 공개한다. 다양한 컬러와 소재로 선보이며, 나노 벨트 백, 미니 백, 체인 스트랩으로 길이 조절 가능한 스몰과 미디엄 사이즈 백까지 총 47가지 사이즈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46-2790

마이클 코어스 쉐드라 베스트셀러 스카일러 부티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발목을 부드럽게 감싸는 스트레치 소재와 에어 아웃솔을 적용해 착용감이 뛰어나다. 블랙, 그레이, 네이비, 총 3가지 색상으로 선보인다. 문의 02-546-6090



브루넬로 쿠차렐리



프라다

GIVENCHY

FASHION

MONT
BLANC



Creating new heights.

새로운 몽블랑 스타 레거시 폴 캘린더.

montblanc.com